

M46-9-4/2008.01

제9권 제4호/Vol. 9 No. 4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24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 포커스

2008 북한 농업 전망과 남북한 협력과제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4 | 6. 농업기반 / 78 |
| 2. 벼농사 / 44 | 7. 산 림 / 82 |
| 3. 밭농사 / 59 | 8. 기타 작물 / 94 |
| 4. 감자농사 / 62 | 9. 기타 보도 동향 / 99 |
| 5. 축 산 / 65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07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7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118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19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53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53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64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71

포 커 스

- 2008년 북한 농업 전망과 남북한 협력과제

2008년 북한 농업 전망과 남북한 협력과제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농촌진흥청은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0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보다 낮은 380만 톤 내외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2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140만 톤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식량부족 현상을 면하기 어렵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6년 9월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해상 운임도 2~3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곡물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우방인 중국도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와 수출관세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금년 한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았으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식량차관을 제공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곡물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70~9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농정 동향을 살펴볼 때 특이한 정책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금년에도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먹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식량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비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급비료 증산에 힘을 쏟고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조관리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현대식 육묘체계의 도입이나 양돈장 건설도 외부의 지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호름식 물길공사나 토지정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결국 북한이 단기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답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는 일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1. 서 론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는 점차 회복되어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관계가 더욱 돈뚝해졌다. 정상회담 이후 후속적으로 추진된 남북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 군사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듯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남북한이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상당한 결실도 얻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2005년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도 커다란 진전을 보인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7월에는 북핵 시설의 폐쇄·봉인을 완료되었으며 10월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합의하였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하고 6자회담 참여국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 원칙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당초 12월 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했던 북한은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북한이 제대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화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지난 여름 발생한 북한의 수해라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으로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했고 국제사회는 이에 화답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 국가의 재앙이 상대국과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데 북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좋지 않은 기상과 2차례 걸쳐 발생한 홍수 피해로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2006년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38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¹⁾ 이에 비해 농촌진흥청은 11% 감소한 401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 양 기관의 추정 결과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수해 피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아직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다 국제 곡물 가격의 폭등과 중국의 곡물 수출 통제 등 식량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FAO는 전 세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37개국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FAO는 식

1)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No. 6, December 2007.

량위기에 처한 국가를 식량 생산과 공급이 극히 부족한 국가, 전반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국가, 지역적으로 식량안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세 범주로 나누고 북한을 비롯한 8개국을 중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금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먹는 문제를 특히 강조하였으며 식량 증산을 위해 분조관리제를 강화하고 물길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2. 북한의 농업 동향

북한 당국은 한 동안 농업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체제 이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듯하다. 최근 개인이나 기업소 등을 통한 영농을 축소하거나 과거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던 포전담당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등 체제 외적인 농업관리방식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증산효과보다는 체제 이완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수확기 이후 강화하였던 식량배급제의 큰 틀이 훼손되지 않고 있거나 시장을 통한 식량 거래를 단속하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식량 배급제 강화를 통해 시장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이것이 정부 보유 양곡의 재고 감소를 가져와 향후 시장 불안정이 나타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06년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장의 식량 가격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당국이 배급제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당국은 개인 또는 조직의 불법적 식량 유출이나 상업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토지 중 개인이나 기업소에게 경작을 허용하였던 토지도 회수하고 있다. 일부 자투리땅이나 뚝배기에 대해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있다.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부동산 사용료 부과 이전 이미 토지와 건물, 가옥 등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은 그 동안 이완되었던 체제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 결속을 위한 대규모 군중대회 등 정치적인 행사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적 해이를 차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겠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외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북한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기존의 농정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량부족 상황을 타개하거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령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돼지고기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 도처에 양돈장을 건설하거나 콩 재배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미 변화된 주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외 채소나 과일의 생산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채소의 경우 새로운 품종 개발이나 재배법의 개선에 주력하며 과수는 왜성 대목을 이용한 밀식재배를 강조하고 있다. 식량작물 중에서 쌀은 현대적 육묘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재배법에 있어서도 직파재배를 시도한다거나 소식재배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주체농법의 틀을 벗어난 농법을 채택하는 등 과학적 농사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전통적으로 해오던 영양단지재배 대신 간편한 이식재배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예 직파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감자농사는 이모작 작물로써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씨감자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의 지원에 힘입어 상위단계의 씨감자 생산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우량 씨감자를 증식하여 보급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농업기반의 확충이다.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와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현재 황해도 미루벌 물길공사를 추진 중이다. 금년 초 홍명렬 농업성 부상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금년 말까지 미루벌 물길공사를 완공하고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지역에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연이어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선신보, 2008. 1. 3). 기상 이변의 충격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개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름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큰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지만 장기에 걸쳐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외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 당국은 농업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한 협동농장의 생산성 증대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조관리제의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조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은 시장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면서 초과생산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대신 국영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돌아가기 어렵다. 그리고 협동농장에 대한 정부의 농자재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는 대부분 한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농기계 연료나 부품의 공급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원활하

게 공급되는 농자재를 찾기 힘들다. 자급비료 증산을 통해 비료 부족 상황을 모면코자 하지만 한계가 있다.

최근 북한의 농정 동향을 분석해 때 새로운 정책을 발견하기 어렵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어려운 식량사정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농업 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3. 남북한 협력 동향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7년 말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북한에 총 19억 8,986만 달러(2조 1,100억 원)를 지원하였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체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지원액 중 정부 차원의 지원액은 총 13억 4,882만 달러(67.8%)이고 민간 지원액은 6억 4,104만 달러(32.2%)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 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물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만 톤의 식량을 양자 지원 형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차관형식으로 260만 톤의 곡물을 제공하였다<표 1>. 이 외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다자지원 형식으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민간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였다.

표 1. 대북 식량지원

연도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지원실적	국내산 쌀 15만톤	식량 50만톤 -외국산 쌀 30만 톤 -외국산 옥수수 20만 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10만톤 외국산쌀 30만 톤	국내산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 톤	국내산쌀 10만톤 (수해 복구)	국내산쌀 15만톤 외국산쌀 25만톤	쌀 265만톤 옥수수 20만톤
금액(억원)									
협력기금	1,854	1,057	1,510	1,510	1,359	1,787	400	1,630	11,107
양특회계	-	-	6,518	6,644	1,444	6,726	-	2,252	23,584
계	1,854	1,057	8,028	8,158	2,803	8,513	400	3,882	34,691
지원형태	무상	차관	차관	차관	차관	차관	무상	차관	

주: 1. 민간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 및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지원은 제외

2. 차관형태로 지원된 식량은 총 260만 톤(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이며 총 소요비용은 협력기금 8,853억원, 양특회계 2조 3,584억 원 등 총 소요비용은 3조 2,437억원.

3. 국내산 쌀 지원시 국제 쌀 가격과의 차액 등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함.

북한에 대한 대규모 비료 지원이 개시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 북한 농업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 농업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동참하면서 북한 농업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비료 지원을 개시하였다. 이후 남북한 관계나 국제관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매년 30~35톤의 비료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2007년까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비료는 총 285만 톤에 달한다<표 2>.

표 2. 대북 비료지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규모 (만 톤)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금액 (억 원)	462	944	638	832	836	1,028	1,206	1,200	998	8,144

주: 1999년 지원량에는 민간 지원분 4만 톤 포함.

분야별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대북 지원 초기에는 일반구호 분야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북한의 농업개발이 본격화된 1999년부터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여 2005년에는 전체 지원액의 65%를 농업 분야에 지원하였다<표 3>.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누적지원액 19억 8,986만 달러 중 농업 분야의 지원액은 8억 1,914만 달러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이 밖에 일반구호와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비중은 각각 46%, 13%이다.

표 3.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단위 : 만 달러(%)

구 분	1995-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일반구호	23,680 (100)	4,329 (91)	2,891 (91)	565 (12)	1,434 (13)	6,067 (45)	4,174 (31)	6,157 (44)	10,538 (41)	4,364 (20)	11,672 (39)	14,792 (46)	90,580 (46)
농업복구	5 (0)	205 (5)	254 (8)	3,941 (84)	8,562 (75)	5,476 (40)	7,351 (54)	7,673 (42)	9,450 (37)	13,744 (65)	14,082 (47)	11,926 (37)	81,914 (41)
보건의료	-	189 (4)	40 (1)	182 (4)	1,380 (12)	1,996 (15)	1,967 (15)	1,933 (14)	5,632 (22)	3,164 (15)	4,301 (14)	5,716 (17)	26,492 (13)
계	23,680 (100)	4,723 (100)	3,185 (100)	4,688 (100)	11,376 (100)	13,539 (100)	13,492 (100)	15,763 (100)	25,620 (100)	21,254 (100)	30,055 (100)	32,434 (100)	198,986 (100)

주: 대북 지원액 중 한국 정부가 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한 곡물은 제외됨.

자료: 통일부, 2007.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농업복구지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주로 식량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액의 2%에 불과하다. 식량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농업 분야의 지원은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40% 정도로 농업에 대한 지원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006년 7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남북한 사이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이로 인해 2006년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차관이 중단되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식량도 핵실험 때문에 수송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재개되어 2.13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2.13합의는 북한이 핵 시설의 폐쇄와 불능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 상황에 맞추어 중유 제공 등 경제적 지원과 북미 또는 북일 관계의 개선을 시도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참여국 모두가 수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2006년 비료 지원과 함께 중단된 수해복구용 식량 지원을 재개하였다. 2007년에는 중단되었던 식량차관도 재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으며 민간단체의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2007년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7년 10월 초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민족 간 경험의 우대와 특혜 부여,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 조선단지 건설, 농업·보건·환경 분야의 협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 조치로써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체화하였다. 총리회담에 이어서 12월에는 남북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합의에서는 산하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로 협력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분야는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대체하고 기존의 합의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농업분야의 협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언급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지만 후속적으로 개최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실무회담, 총리회담, 제1차 경제

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총리 회담에서는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협력사업 중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설치를 2007년 중 착수하고 산림녹화와 병충해 방제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총리회담에 이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호혜적인 방식으로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12월에 개최된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세 가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농산물 검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정보를 교환하고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및 예방·진단·약품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과수, 채소, 잡곡, 축산 등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4. 2008년 북한 농업 전망

가.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1) 식량 공급 전망

농촌진흥청은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2006년에 비해 11% 감소한 401만 톤으로 추정 발표하였다<표 4>.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홍수피해였다. 8월 중순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일대 13만 ha의 농경지가 침수, 유실, 매몰, 도복 등의 피해를 입었다.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인해 서해안 곡창 지대는 또 한 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파종기의 가뭄도 곡물 수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2006년에 비해 비료 공급량이 줄어든 것도 작황을 나쁘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무상 지원을 포함하여 2007년 동안 북한이 외부로부터 도입한 비료의 양은 378,864톤으로 2006년의 446,951톤에 비해 18%나 감소하였다. 자체 비료 생산량은 2006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19%나 감소하였다. 이 중 침수나 유실, 매몰로 인한 감수 요인이 10.3%, 비료 부족으로 인한 요인이 8.5%로 추정된다. 2007년 한국의 쌀 수량은 4.66톤/ha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쌀 수량 감소폭은 훨씬 크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9% 감소하였다. 벼에 비해 수해 피해를 더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수량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비료의 부족이라고 추정된다. 이 밖에 우량종자의 미확보, 수해, 병해충 및 잡초의 피해, 저온 및 일조부족 등 제 요인이

수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옥수수의 경우 집중강세를 이용한 F1종자를 확보해야만 수량 저하를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은 종자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1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F2 종자를 사용했을 때 F1 종자에 비해 30% 이상 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 추정량

구 분	계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610	587	526	137	139	201	25
수 량(톤/ha)	-	2.60	3.02	1.77	1.11	3.19	0.70
2007생산량(만 톤)	401	153	159	25	15	47	2
2006생산량(만 톤)	448	189	175	21	16	45	2
2006년 대비(만 톤)	-47	-36	-16	4	- 1	2	0
(%)	-11	-19	- 9	17	- 2	4	0

자료: 농촌진흥청, 2007. 12.

콩의 경우 초기 생육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6월 상중순의 가뭄, 개화기인 7월 중순의 저온, 비대 및 등숙기인 8~9월의 지속적인 강우와 일조 부족이 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콩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아 벼나 옥수수에 비해 생산량 감소가 경미하다.

서류나 맥류는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황이 좋은 편이었다. 감자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정도가 이모작으로 재배되며 보리나 밀의 경우는 대부분 이모작으로 재배되기 때문이다. 2007년 이모작 작물의 경우 기상여건이 비교적 좋아 자연재해 피해를 받지 않았다. 종자와 비료가 적기에 공급되는 등 작물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이 비교적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촌진흥청에 비해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낮게 추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비해 FAO는 이 보다 낮은 7% 정도로 추산한다.²⁾ 그렇지만 FAO는 감자를 포함한 북한의 곡물 재배면적을 농촌진흥청에 비해 훨씬 낮게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농촌진흥청의 추계치보다 낮다. FAO는 2005년 곡물 수확면적을 1,517,250ha, 2006년 1,428,578ha로 추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161만 ha에 비하면 6~11% 낮게 잡고 있다.³⁾ 작물별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농촌진흥청과 FAO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

2)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No. 6, December 2007.

3) FAO, "FAO의 2008년도 대북 농업지원프로그램," 「세계 식품과 농업」 2008년 1월호, FAO한국협회.

다. FAO는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추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체 곡물 생산량을 380만 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2008년 여름에 수확할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07/08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생산량은 380~400만 톤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밖에 곡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 규모,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 북한의 상업적 수입량 등이 있다. 2008년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대북 식량차관 규모를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절차와 6자회담의 개최 여부 등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북 식량지원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전망도 남북한 관계 못지않게 불투명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의 진전과 밀접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보다 더욱 불확실하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도입할 식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 규모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중요한 변수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의 곡물 도입 여건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 여건도 좋지 않지만 중국을 비롯한 국제 곡물 시장이 호의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중국은 곡물 작황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금년 초 쌀, 옥수수, 밀가루 등 주요 식량에 대해 수출쿼터제 및 수출관세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006년 9월 이후 일부 품목은 1년 반 동안 가격이 배 이상으로 올랐으며 밀 가격은 1년 동안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였다. 국제 해상운임도 최근 2년 동안 3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4)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식량 수출 억제제를 위해 쌀, 옥수수, 밀가루, 콩 및 이를 가공한 분말제품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주요 곡물에 대해 수출 금액의 13%를 환급해주던 세제혜택을 전격 폐지한데 이어 금년에는 더욱 엄격한 식량수출을 억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외 식량수출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국제시세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 식량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중, 올해부터 밀가루·쌀·옥수수 수출제한,” 2008.1.2) 2007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북한에 1톤의 옥수수를 수출할 때마다 수출가의 13%인 200위안씩 수출업자에게 환급해 주었으나 12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8년 새해 들어서면서 수출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옥수수 1톤을 수출할 경우 270위안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중 세관, 대북식량 밀수출 단속강화,” 2008.1.16). 중국 정부는 주요 식량에 대한 수출쿼터를 실시한 데 이어 노동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쿼터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2008년 1월 19일 발표한 2008년 양식제분수출쿼터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에 따르면 수출쿼터를 받으려는 유통기업은 ISO9000 품질인증서와 ISO14001 환경관리인증서를 비롯해서 종업원들이 양로, 실업, 의료, 산재, 출산 등 5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관할 노동국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등 외국 식량수출이 상당기간 적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중, 노동법 위반기업도 식량수출 금지,” 2008.1.28.)

곡물을 수입할 경우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코자 할 경우 수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거와 같이 특혜 조치를 받는다거나 곡물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7/08 양곡연도 중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은 380~40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의 식량차관이 지속될 경우 차관 규모는 40~50만 톤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10만 톤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7/08 양곡연도 중 한국의 식량차관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북한의 식량 공급량은 430~450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이 외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하는 곡물의 양을 합하면 전체 곡물 공급량이 될 것이다.

(2) 식량 수요 전망

식량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식용 수요 이외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감소 등 용도별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합산한다. 이 중에서도 식용 수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식용 소요량에다 인구수를 곱하면 전체 식용 소요량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인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북한은 1993년 센서스를 실시한 이후 15년 동안 한 번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지 않았다. 유엔 인구기금(UNFPA)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 가을 실시할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향후 북한 인구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정 기관에 따라 인구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통계청은 2006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를 23,079,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연간 인구증가율을 0.8%라고 가정할 경우 2008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23,450,000명으로 추정된다. 유엔 경제사회부(<http://esa.un.org/unpp>)는 2005년의 북한 인구를 23,616,000명, 2010년 24,015,000명으로 추정하였다. 이 기간의 인구증가율 0.335%를 적용할 경우 2008년 북한 인구는 23,854,000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중앙정보국(CIA)은 2007년 7월 기준 북한의 인구를 23,301,725명, 2007년의 연간 인구증가율을 0.785%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7월 기준 북한 인구를 추정하면 23,485,000명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추정치 23,450,000명은 유엔 경제사회부의 추정치 보다 404,000명, 미국 CIA의 추정치보다는 35,000명 더 적다. 세 기관의 추정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식량 수요를 파악할 때도 추정 기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계식

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 kcal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 kcal (연간 167 kg)을 식용소요량으로 추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부가 추정한 인구를 적용하여 식용 소요량을 추정하고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감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2007/08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524만 톤으로 추정된다.

- 식용 3,983,000톤(1인당 연간 167kg)
- 사료용 300,000톤(북한당국의 추정치)
- 종자용 230,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625kg, 두류 45kg 적용)
- 가공용 120,000톤(식용 소요량의 3%)
- 수확 후 손실 570,000톤(곡물 생산량의 15%)
- 총소요량 5,203,000톤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과는 달리 북한의 식량수요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식용 곡물 소요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 기준 1인당 1일 2,130 kcal, 연간 222 kg과 통계청이 추정한 인구를 적용한다.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등 기타 용도는 WFP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7/08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6,462,000톤으로 전망된다.

- 식용 5,206,000톤(1인당 연간 222kg)
- 사료용 300,000톤(북한 당국 추정치)
- 종자용 245,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625kg, 두류 45kg 적용)
- 가공용 156,000톤(식용 소요량의 3%)
- 수확 후 손실 601,000톤(곡물 생산량의 15%)
- 총소요량 6,508,000톤

추정 기관에 따라 식량 수요의 기준이 다르며 인구, 곡물 생산량, 곡물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치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식량소요량 추정치에 차이가 있다. 통일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2007/08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소요량은 651만 톤, 세계식량계획 기준을 적용하면 520만 톤이 된다<표 5>. 세계식량계획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520만 톤은 최소소요량, 통일부 기준을 적용한 651만 톤은 정상소요량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2007/08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소요량 추정

단위 : 정곡 1,000톤

용도		추정기관		비 고
		통일부 기준	WFP 기준	
인구(천명)		23,450	23,854	연도 중간 인구
용 도 별	식 용	5,206	3,983	기타는 수확 후 손실 등
	사료용	300	300	
	종자용	245	230	
	가공용	156	120	
	기 타	601	570	
	합 계	6,508	5,203	

(3) 2007/08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2007/08 양곡연도의 식량공급은 주변 상황에 따라 매우 불확실하다. 이미 2007년 가을 수확이 끝났지만 2008년 여름에 수확할 보리와 밀, 감자의 예상수확량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은 기상 여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모작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감자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50만 톤을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 공급은 자체 생산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지원이나 상업적 수입량, 특히 한국의 대북 식량 차관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년의 기상과 비료 공급 수준을 가정한다면 2007/08 양곡연도 중에 공급될 식량은 380~400만 톤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식량차관과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공급량은 430~450만 톤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곡물 소요량은 적용 기준과 인구 전망에 따라 520~651만 톤으로 유동적이다. 세계식량계획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곡물 소요량은 520만 톤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한국의 식량차관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더라도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80~90만 톤의 곡물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통일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250만 톤의 곡물이 부족하며 한국의 식량차관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200~210만 톤가량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표 6. 2007/08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수급 전망

단위: 정곡 만톤

구 분		통일부 기준	WFP 기준
공 급	생 산(B) ¹	401	380
	지 원 ²	50~60	50~60
	계(C)	451~461	430~440
소 요 량(A)		651	520
부 족 량(A-B)		250	140
부 족 량(A-C)		200~210	80~90

주 1. WFP는 2007/08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생산량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FAO의 추정치를 적용함.

2. 2007/08 양곡연도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은 40~50만 톤, 국제사회의 지원은 10만 톤으로 가정함.

만일 2008년에 한국의 식량차관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2007/08 양곡연도의 식량공급량은 390~410만 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최소소요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식량 부족량은 130~150만 톤에 이르게 된다. 정상적인 식량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면 식량 부족량은 250만 톤 이상일 것이다. 만일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2008년 가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5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9년에는 식량 상황이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식량배급제도를 강화한다고 공언하였지만 비축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량분배는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시장의 곡물 거래마저 통제할 경우 시장의 곡물 가격을 부채질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는 식량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장의 곡물 거래를 허용한다고 해도 주민의 상업 활동 단속으로 인해 가게 소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매력 부족으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대부분 거부한 상황이므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한 식량난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홍수 피해 이후 북한 적십자사가 국제사회에 긴급 인도적 지원을 호소한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식량지원의 경우 국제사회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의 1/3 가량은 자신의 능력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없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감소할 경우 이들 계층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4월경부터 식량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춘궁기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 농정 전망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증산과 농촌 살림집 건설을 우선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라는 표현은 식량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10년간 감자농사혁명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동농장에서도 콩농사를 잘해나감으로써 식량문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재공급소는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자재와 각종 물자에 대한 정부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동농장은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홍명렬 농업성 부상이 조선신보와 인터뷰한 내용(조선신보, 2008.1.3)에서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기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자연기후의 영향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작황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10,000여 정보에 소식재배 방법을 채택하여 수확고를 늘렸다고 한다. 2008년에는 전국의 모든 농장에서 현대모와 영양모를 비롯한 다수확 우량품종을 널리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화학비료 부족에 대응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땅의 지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구축하며 2008년에는 미루벌 물길공사를 완료하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등에서도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를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농장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단위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에도 부족한 식량 해결을 위하여 식량 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력 동원과 토지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묘안이 없으므로 농촌인력을 자급비료 생산에 최대한 동원하고 농번기에는 도시민을 농촌 일손 돕기에 대대적으로 동원하게 될 것이다.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관리방식이나 주체농법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동농장에 상당한 자율권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협동농장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농장원의 복지는 오히려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식량수급의 안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므로 시장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식량분배 기

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식량을 포함한 시장의 식료품 가격은 가을 수확기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장통제에 따른 협동농장의 경제적 인센티브 저하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국영유통망을 통한 초과생산물의 수매를 확대함으로써 이중적인 국정가격체제와 더불어 시장가격이 혼재하는 농산물의 삼중가격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정부 수매의 확대로 협동농장은 초과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농장원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5년간의 중기계획을 설정하고 금년을 그 첫해로 삼는다고 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은 지켜나가되 환경 변화에 따라 접근법과 방법론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눈에 띄는 문구는 “모든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내용이다.

향후 5년간 중기계획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연흐름식물길공사와 농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홍명렬 농업성 부상이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서해안과 동해안 평야지대에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화학비료 부족에 대비하여 퇴비 등 자급비료의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비료 원료를 확보하고 주민에게 단백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양돈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천 정비나 경사지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관배수 시설의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농업관리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협동농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토지사용료를 징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국가 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징수하되 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전망이다. 따라서 협동농장은 비료, 농약, 종자, 연료 등 농자재의 자체 조달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분조관리제 또는 변형된 분조관리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식량분배권을 강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식량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할 것이다. 단기간에 식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부의 식량분배권 강화를 통해 식량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할 것이다. 정부는 협동농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초과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대신 국영유통망을 통해 수매가 이상으로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유통시장의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식량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수입 대체를 위해 양돈장 건설을 확대하고 사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며 콩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주체농업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학영농 방식을 과감하게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소식재배나 직파농법을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농자재가 부족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에도 농자재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영농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모작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모작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육묘 방법, 품종 개발, 재배법 등도 적극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협력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조달코자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리회담 및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주로 자본재의 지원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차원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민간차원의 지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농업협력은 당국자 간의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겠지만 지금까지의 협력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북한은 향후에도 한국의 쌀 차관 및 비료 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이다.

5. 남북한 농업협력의 과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협력 방향을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발협력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당장 개발협력을 추진할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실상이 어떠하며, 어떠한 경제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목표를 실현할 것인지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 당사자인 한국은 북측에 이러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협력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민간단체, 기업가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호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은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각 주체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단체나 기업이

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는 협력과는 달리 남북한 경험은 초기에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은 기본적으로 기업가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이다.

지원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식량을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자연재해 복구나 사방사업, 조림 등 농업기반을 복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로사업(Food for Work)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차관으로 제공하는 식량은 무상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등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체 차관 규모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무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개별사업(프로젝트)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틀(프로그램)을 북한과 함께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증산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산림황폐지 복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경험 가능한 분야로는 축산물 생산 및 가공, 양잠, 담배 및 인삼 생산 및 가공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 생산의 특성상 남측 협력사업자의 자유로운 통행(특히 개성이나 금강산을 통한 출입국)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밖에 남북한 사이의 농축산물 검역 및 통관에 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경험 이전에 지원 성격이 가미된 경험기반조성사업이 선행되어야만 경험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북 비료지원, 식량 차관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 비료 지원은 적어도 현재의 규모(연간 30~35만 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비료공장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비료공장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식량지원도 필요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지원 호소에 동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 향 분 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 산
6. 농업기반
7. 산 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요약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주장함. 농업부분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식량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릴 것을 주장함.

본격적인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시작되면서 이를 빠른 기간에 완료하기 위하여 농촌 노동력 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하였음. 또한 다음해 농사 준비를 위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및 종자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 특히 콩농사는 벼농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감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확감자품종의 육성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양강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감자수확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흥단 감자가공공장에서는 감자전분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통하여 감자가공처리능력을 신장시켰음.

축산분야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 풀먹는 집짐승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의 축산정책에 따라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와 우량품종 생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더불어 집짐승 먹이의 원만한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집짐승들의 겨울나기 준비가 빈틈없이 실시되고 있음.

산림분야에서는 수림화, 원림화를 목표로 산림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만 6천여정보의 산림이 조성됨.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예비노동력이 투입되고 가능한 생산설비를 모두 가동하고 있음.

미루벌 물길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명저수지에서 시작된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공됨. 미루벌 토지정리가 단계별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사리원시의 미곡리 또한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 외에 종자혁명을 통한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량종 늘리기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자재 공장에서는 농촌에 더 많은 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하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벌이고 있음.

1. 농업정책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주장함. 농업부분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릴 것을 주장함

□ 신년공동사설

- 신년공동사설 ‘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게재(로동신문 1. 1, 민주조선 1. 1)

정치

- 새해 주체97(2008)년은 조국과 혁명력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임.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임.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핵무기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함. 군대의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은 수령결사옹위에 있음.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선군정치방식으로 해나가야 함.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여야 함.

경제

-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함.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경제강국 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함.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 강성대국 건설에서 한몫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함.

농업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경공업

- 인민소비품의 지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활필수품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함.

공업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전력생산을 빨리 늘려야 함.
-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해야 함.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철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여야 함.
- 지질탐사와 채취공업부문에 힘을 넣어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함.

국방

-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함.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들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야 함.
- “일당백”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전투적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주체전법에 정통하게 준비시켜야 함. 전군의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를 적극 다 그쳐야 함.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함.

대남·통일

- 2007년은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해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임. 따라서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함.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함.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해서는 어느 때에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북남 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임.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장려해야 함.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락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염원을 실현해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08

연 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1995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자력갱생의 구호하에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받침될 때 명실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 추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8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2001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철도운수를 정비 보장하여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8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4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려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2005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임.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8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6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 전력공업부문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야 함.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떨쳐나서야 함.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 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007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함. · 주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는 것임. · 경공업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함.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금속공업은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함. 철도운수부문은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함.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8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8	· 강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평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통해 자립민족경제를 발양시켜야 함 ·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를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 농업정책

○ 식량문제해결을 위하여(로동신문 10.16)

- <세계식량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속에 식량문제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한편 세계적인 식량문제해결의 절박성과 그 방도에 관한 국제적 토의를 심화시키자는데 있음.
- 북한은 여러 해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업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토지정리와 물길 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추진하는 한편 농업생산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진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올해 <세계 식량의 날> 주제는 <식량에 관한 권리>임. 식량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초보적인 권리이지만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족

한 식량사정은 인류가 이 권리를 누리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세계적인 식량문제와 그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민주조선 10.17)

- 김일성은 식량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이 인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말함. 올해 들어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전례 없는 손실을 입음. 세계적으로 농업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실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많은 나라들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절박한 과제로 내세우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도에서는 물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페루,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생육기일이 짧고 저항력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음.
-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개공사도 실시하고 있음.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 54차 전원회의(로동신문 10.25)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 54차 전원회의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됨. 전원회의에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꾼들이 참가하여 선군시대에 사회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농근맹조직들의 파업에 대해 토의함.
- 농근맹원들이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노선의 진수와 요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적극 발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농근맹원들이 농장의 알곡생산계획을 달성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사상교양과 경제선동을 벌려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지구온난화가 세계농업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로동신문 10.25)

- 지구온난화방지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한 국제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는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저하, 새로운 빈곤문제 발생, 자연재해 등 전쟁과 분쟁에 의한 피해에 못지않은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오고 있음.
-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시기에 비해 0.7℃

높아졌으며 현세기 중엽에 가면 2℃ 올라갈 것이라고 함. 2070년 이후에는 3℃ 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북빙양의 얼음이 전부 녹아버릴 것이라고 함. 이는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에 현실적인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 지구온난화로 특히 전세계의 농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미국에서 기후변화가 전세계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라별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회의가 진행되었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상급연구사 윌리엄 클라인은 지구온난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심화되는 경우 21세기 말에 가서 전 세계의 농업이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2080년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세계의 농업생산이 15-20% 감소될 것이라고 밝힘.
- 지구 온난화는 몇몇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공동의 과제임. 모든 나라가 지구온난화방지를 자기의 일로 간주하고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간다면 지구온난화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함.

○ 심각해지는 세계 식량 위기(로동신문 11.2)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세계가 30년 만에 또다시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예측을 보도함. 기사에 의하면 1970년대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휩쓴 후 처음으로 밀, 강냉이와 같은 알곡들과 기초식품의 부족현상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인구대국들에서의 식량수요가 증대되고 세계적으로 알곡을 이용한 생물연료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알곡작물 소비 몫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세계식량계획은 생물연료생산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농산물가격이 20-50%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세계은행은 2000-2030년 사이에 급증되는 식량수요에 대처하자면 알곡생산은 50%, 고기생산은 85%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식량생산을 늘리는 한편 식량가격상승과 식량부족에 대처하여 식량저축 등 일련의 대책을 취하고 있음. 또한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수출량을 줄이고 수출관세를 높이는 등 국내의 식량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도하고 있음.

○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경쟁(로동신문, 11.8)

- 농업생산을 늘리고 새 세기에 맞게 농장마을을 꾸리기 위해서는 귀중한 경험들을 전국의 사회주의 농촌들에 일반화하는 한편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에 맞게 단위들 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능란한 정치사업으로 경쟁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함.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의 일꾼뿐만 아니라 이 농장들이 속한 군과 도의 일꾼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쟁과정에서 자기 단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단계별 사회주의경쟁요강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경쟁단위들에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주의경쟁판정사업을 위해 농업성과 도시경영성, 중앙통계국과 농업과학원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영입되었으며 도, 시, 군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지휘부가, 협동농장에는 사회주의경쟁추진 및 평가역량이 조직되었음.

○ 책임적으로 작전하고 실천하자(로동신문 11.10)

- 여름철에 입은 홍수피해와 더불어 전기사정도 좋지 못하여 트랙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여 올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전투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음.
-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고 할 때 한해농사를 결속하는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농촌경리부문 일꾼, 농업근로자들이 책임적으로 작전, 실천해나갈 것을 요구함.
- 협동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벼단꺼들이기 작업에 동원되어야만 하며 연유와 전기, 자재와 부속품을 최대한으로 대주어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야 함. 농촌지역의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일꾼들 또한 협동농장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야 함.

○ 공동시설과업관철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 대중운동(로동신문 11.26)

- 은률군 구월농장 당조직에서는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삼고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루기 위한 공동시설과업관철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대중이 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조직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
- 농장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해 일꾼, 노동자들이 나라의 쌀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데 대한 사업내용을 논의하였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 목표를 높이 세운 농장일꾼들은 문화회관과 작업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 이를 크게 게시하여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적극 참여하도록 함.
- 농장에서는 작업반 홍보산비료 생산기지의 능력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생산을 2배로 늘렸으며 분조들과 농장들에서 수천 t의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임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함.

- 이밖에도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흑령탄광, 선천군 은정협동농장, 만포방사공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자동차사업소, 허천강발전소, 백두산들쭉가공공장, 평천역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

○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로동신문 12.7)

- 온성군 세선협동농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아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짓는 운동을 적극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둠.
- 온성군에서는 노력과 영농자재를 훨씬 줄이면서도 수확고를 높이는 지역 특색의 소식재배의 영농방법을 알아내었으며 소식재배에 대한 기술강습을 진행함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농방법을 자기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겠다(로동신문 1.2)

- 올해공동시설의 정신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벌려나갈 것임.
- 올해는 당의 감자농사혁명 방침제시 10돐이 되는 해로 감자농사에 더 큰 힘을 넣어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농업생산의 주인은 농업근로자 자신임. 일꾼들은 농업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과업 관철을 하여 올해농사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할 것임.

○ 당의 농업방침을 철저히(민주조선 1.4)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함.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지속하며 지난해의 농사과정에서 성과를 낸 선진적인 영농 기술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함.
- 감자농사를 잘 지어 지난 기간에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며 인민군

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야 함.

○ 정초부터 활발히 전개되는 농촌지원사업(민주조선 1.5)

- 김정일은 “농사일을 돕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며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농촌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함.
- 4일 전력공업성, 화학공업성, 철도성, 사회과학원 등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농사를 돕기 위해 마련한 2만여점의 중소농기구들과 1000여 톤의 거름을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과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에 보냄.
- 각 도, 시, 군들에서도 농촌지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수도의 기관, 기업소들과 각 구역 가두인민반들에서는 2만 40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과 각종 농기계 부속품들을 가지고 4일 시주변 농장들을 찾았음.
- 황해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논밭의 지력을 높여야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많은 거름들을 주변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포전들을 기름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로동신문 1.7)

- 연산군 반천협동농장에서는 올해에 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증산을 이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세움,
- 지난해 농사에서 질 좋은 유기질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듬뿍 내고 앞선 재배방법을 도입한 결과 강냉이의 정당수확고는 눈에 띄게 달라졌음. 같은 알곡종자를 가지고도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선진영농방법을 터득한 것임.
- 농장에서는 올해에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수확품종의 종자 확보, 농기계 및 농기구 수리, 부림소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음.

○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키자(로동신문 1.10)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분조들에서 포전별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알곡작물을 대대적으로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낟알털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과정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농사일의 기계화 비중을 훨씬 높이며 주인다운 입장

에서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또한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강화하여 집단적 혁신의 의욕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새해 영농전투지원사업을 짜고들여(민주조선 1.11)

- 황해북도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농촌을 더욱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고 있음.
- 도시거름생산계획을 대담하게 세우는 것과 함께 그 질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시, 군들에서 모든 역량을 당면한 도시거름생산에 총집중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도시거름을 실어내기에 앞서 그 질적상태를 평가하는 사업도 잘 짜고들여 도시거름생산에서 질적수준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소농기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민주조선 1.12)

- 량강도에서는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농업 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관, 기업소, 공장, 동, 인민반별로 거름생산과제를 주고 원천을 모조리 찾아 거름을 생산하는 족족 각종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농장포전들에 실어다주도록 하고 있음.
- 시인민위원회와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 가두 인민반원들도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시주변 농장포전들에 실어다줌으로써 새해농사차비를 다그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고 있음.

○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 전환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민주조선 1.13)

-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는 농장궐기대회를 갖고 다수확품종의 재배면적 증가,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의 주체농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결의함.

- 대흥단군 백산농장, 김형권군 직설협동농장에서도 껄기모임을 갖고 감자농사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할 결의를 표명하였음. 함주군 추상, 어량군 두남,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의 농장껄기대회에서는 알곡과 남새, 축산등에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구체적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음.
 - 이 외에도 북청과수농장, 만포고치생산사업소, 청진트랙터부속품공장,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에서도 껄기대회를 가졌으며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 알곡생산을 늘이는 것은 농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로동신문 1.18)
-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임. 또한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임.
 -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 큰 힘을 쏟아야 함. 또한 감자농사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콩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로동신문 1.20)
-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의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시주변 군, 구역협동농장 경영위원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영농조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협동농장들에서 논밭 정보당 질 좋은 거름을 20t이상, 흙보산비료는 5t이상 내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 또한 주변협동농장들에서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확보정형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보통강의 묵은 감탕을 논밭에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중소농기구들과 벼랭상모판자재들을 제때에 확보하며 물길가시기와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도 예견성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관리

○ 예비 노동력을 통한 자체 농사(노동신문 10.31)

- 룡림군 도양협동농장에서는 해마다 예비 노동력을 찾아내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농장의 일꾼들은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사업을 통해 예비 노동력을 찾으며 이와 더불어 작업조직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하여 많은 예비 노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함. 이를 통해 농민이 주인된 자각 의식을 갖고 애국농민의 의지를 갖게 함.
- 예비노동력을 통한 노력조직사업은 한해 농사에서 웅당 결실을 가져왔으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방법이 더욱 완성되어 노력관리에서 또한 빈틈이 없어졌음.

○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 때(민주조선 12.26)

- 농장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작업반들을 보면 분조관리제를 잘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음. 농장 안에 수십 개의 분조가 있는데 모든 분조가 다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효과 있게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훨씬 늘릴 수 있음.
- 분조관리제를 옳게 실시하는데 분조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차비 때부터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기 시작하여 <분조장수첩>을 나누어줌.
- 농장에서는 분조장들을 도와주며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끈기 있기 하기 위해 ‘분조장의 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함. ‘분조장의 날’에는 분조단위로 해당한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총화와 함께 앞선 분조들의 사업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 분조들에서 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줌.

□ 과학영농

○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10.25)

- 국가과학원 창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23, 2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어 전국의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함.

- 이번 발표회에서 새로운 논벼, 강냉이 품종을 개발하고 수의방역사업, 기초식품과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며 생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비롯하여 농업, 경공업부문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소개함.

○ 종자혁명의 중요성(로동신문 11.7)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 기본 고리는 종자혁명임. 당의 종자혁명방침 요구대로 농업생산에서 우량종자를 받아들이려면 육종사업과 더불어 채종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육종사업이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는 새 품종을 길러내는 사업이라면 채종사업은 육종해낸 품종을 농업생산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품종의 원래 특성을 살리면서 종자를 증식시켜 받아내는 사업임.
-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임. 종자생산에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종자생산공정은 매우 높은 기술을 요함. 때문에 채종부문의 일꾼들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업과학기술지식과 연판부문의 과학기술지식을 부단히 습득하여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종자생산을 적극 구현해나가야 함.

○ 종자론 틀어쥐고 농업과학을 발전시켜(로동신문 12.1)

- 김정일은 “농업과학연구에서는 종자혁명문제,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문제와 같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은 농업생산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수많은 연구 설비를 마련해줌.
- 정보산업시대에는 농사도 과학적인 체계와 방법을 가지고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함. 북한은 농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종합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계별연구목표를 설정한데 이어 청년과학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나라의 지원으로 나라의 농업생태지역을 구분한데 기초하여 과학농사설계안을 작성하고 농작물생육예보체계를 세움으로써 농업생산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릴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함.
- 농업과학자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도입,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지대적 특성에 맞게 안전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학농사체계와 종합적인 농사방법을 더욱 완성할 것임.

○ 농업전선의 미더운 전초병들(로동신문 12.4)

- 올해 농업과학원에서는 농업발전의 전망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열어놓기 위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임.

- 육종부문 과학자들은 새로운 우량품종의 논벼를 육성하였는데 이것이 적극 도입되면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으로 보임. 또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수확고가 높은 강냉이 품종과 두벌농사에 적합한 밀보리 품종도 새로 육성되었으며 역병에 잘 견디는 감자품종을 널리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준비도 원만히 진행됨.
- 올해 농업과학원의 사업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이 농업성과 교육성을 비롯한 여러 성, 과학연구기관들과의 협동작전 하에 활발히 진행된 과학농사도입사업임.
- 농업과학자들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활약으로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생산자들 속에서는 과학농사의 절박성과 우월성이 더욱 깊이 인식되었으며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에 대한 진취적인 입장과 태도가 더욱 확고해짐.

○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발표회(로동신문 12.8)

-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발표회가 12월 5~7일 평양에서 진행됨. 6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20여 건의 농업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발표되었고 새 품종의 알곡작물, 식물성농약, 농기계 등이 출품됨.
-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알곡품종들과 땅을 갈지 않고 논벼를 재배하는 방법, 발종합 연결농기계를 비롯하여 작물과 품종 배치, 영농공정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는 데서 이룩된 성과자료들이 관심을 끄.

○ 과학농사를 잘하는 것은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전제조건(민주조선 12.8)

- 과학농사라는 것은 매 영농공정들에 대한 과학기술성과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종합 체계화하여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요즘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필수적임.
- 자체로 농사짓기 위해서는 대중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있어 주인의식을 갖고 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또한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함.
- 과학농사를 위해서는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지식 수준과 기술기능 수준을 빨리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 자체의 힘과 과학기술로(로동신문 12.11)

- 서해별방지역과 분계연선지역, 북부고산지대의 전반적 농촌들에서 자체로 농사짓

기 위한 열풍이 일어났음.

-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현실적이며 능률적인 방안들이 도처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음. 녕원군 룡성협동농장은 초급일꾼들의 조직력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대홍단군 농사동농장은 영농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택함.
- 선천군 은정협동농장, 석화협동농장, 룡천군 학흥협동농장 등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구현하여 농장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고 있으며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온성군 세선협동농장에서는 선진영농방법과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알곡 소출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무엇보다도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국과학기술발표회들 진행(로동신문 12.14)

- 전국 농작물종자생산부문과 전국 체신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2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평양에서 진행되어 해당 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발표회에 참가함.
- 전국 농작물종자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관철에 기여할 12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가 발표됨.
-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탐구와 노력에 의하여 연구완성된 논벼와 콩, 강냉이, 밀, 보리 등의 다수확품종들, 새로운 종자관리의 기술적 문제들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끄.

○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민주조선 12.26)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올해 농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둠. 특히 농장에서는 올해에 모든 영농공정마다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자재를 종전보다 적게 쓰면서도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지음.
- 농장에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우선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면서 작업반기술원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음.
-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여 앞선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

극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 관철할 각오로(로동신문 12.29)

- 전문화연구소, 각 도의 농업과학분원들, 시험 농목장들의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는 강성대국을 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찾아 내어 풀어나가기 위한 사색, 탐구의 열풍이 세차게 불고 있음.
- 무엇보다도 1대잡종벼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농업과학원의 기본역량을 집중 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력이 낮고 소출이 낮은 중산간지대 의 농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농업과학원에서는 농업성과 교육성, 기상수문국을 비롯한 여러 성, 과학연구기관들 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실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적 농법들을 농업생산 에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체계와 대책을 세우고 있음.

○ 과학농사의 열풍을 세차게(로동신문 1.7)

- 과학농사야말로 알곡생산 성장의 중요한 방도임.
- 개천시 봉화협동농장에서는 기름과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 히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올해농사에 선진영농기술을 더욱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 농장에서는 분조마다 심층시비기를 10대씩 만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내밀고 있 음. 또한 기름과 노력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농작물 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는 새로 운 논밭갈이방법이 올해 농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5련식 보습을 개조 및 보수정비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진행하고 있음.

2. 벼농사

- 10월, 11월에 본격적인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가 시작됨.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는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빠른 기간에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 투입과 더불어 농기계의 만가동이 보장되고 있음. 12월, 1월에는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하기 시작하여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및 다음해 농사에 쓸 종자 확보와 보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영농관리

○ 현실에 깊이 들어가(민주조선 10.23)

- 김정일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항상 협동농장에 내려가 농장의 관리운 영사업을 도와주고 농업생산을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함. 이에 따라 안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가을걷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꾼들은 협동농장 기술일꾼들에게 가을걷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적인 문제 들을 알려주고 있으며,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사평, 천삼협동농장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통해 일을 해나가고 있으며 학천, 비산 협동농장들은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지도를 하고 있음.

○ 농촌당세포 강화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10.24)

- 각지의 도, 시, 군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 낟알털기를 신속히 끝내기 위해 서는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촌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만경대구역,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을 비롯한 평양시의 구역, 군들에서는 일꾼들이 협동농장에 나가 당세포사업을 잘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 있음.

- 신의주시, 룡천군, 선천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조속한 가을걷이를 위한 당원들의 심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민주조선 10.25)

- 당조직의 지도하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하는데 힘을 쓰고 있으며 조직지도사업을 벌리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조장들에게는 작업조직과 노력일평가를 비롯하여 가을철농사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을 다시금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난알털기를 비롯한 가을철 농사일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분조 단위로 하면서 앞선 분조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미루벌이 가을갈이로 들끓는다(로동신문 12.4)

- 김정일은 “모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함.
-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미루벌의 토지정리를 서두르는 동시에 가을갈이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꾼들은 한 개 단위씩 담당하고 농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12.13)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평원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다음해 농사차비의 첫 영농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논밭갈이에 역량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논밭을 갈아엎고 있음.
- 책임일꾼들은 트랙터의 가동실태와 부림소들의 이용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논밭갈이에 필요한 기름과 자재보장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경영위원회에서는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

- 논밭갈이에서는 원화, 원암, 삼봉, 룡이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 가을갈이를 칸지게(민주조선 12.14)

- 평강군 복계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농사차비에서 가을갈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가을갈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부림소를 배합하여 가을갈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꾼들은 토양조건에 맞게 깊이갈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친다(로동신문 12.14)

- 채령군 금산협동농장에서 난알털기를 끝낸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쳐 거름 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농사차비에서 성과가 오를 수 있도록 농장일꾼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며 대중을 고무하고 있음.

○ 다음해농사준비를 착실히(민주조선 12.26)

- 운진군 운하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 농사 준비를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다음해에도 논과 밭에 많은 양의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로 계획하였으며 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탈곡장주변과 밭머리들에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질 좋은 거름생산을하기로 계획함.
- 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확보와 보관관리, 영농자재 마련 등 다른 모든 농사차비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새해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로동신문 1.6)

- 시에서는 모든 단위들에 거름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량정사업소, 건물보소사업소, 은덕원, 덕천제1중학교 등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이 어려운 조건들에서도 수많은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농사차비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 오르고 있음.

○ 새해농사차비를 전투적으로(로동신문 1.12)

- 황해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서해별방지대의 농촌들에서는 한주일동안만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킴.
- 각 도의 농촌들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목표 하에 새해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나 되는 많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신천군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거름실어내기는 1.2배, 흙갈이는 2배의 실적을 올림. 평안북도에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나 많은 거름을 생산함.

○ 영광의 땅 미루벌이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다(민주조선 1.13)

- 1월 11일 현재 미루벌에서는 각각 1만여 t, 수만 수천 t의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진행하고 수천 톤의 상원카리와 구조토, 소석회를 비롯한 토지개량제를 실어들였으며 많은 면적의 흙갈이를 하고 산성토양과 랭습지를 개량하였음. 이밖에도 랭상모판자재와 중소농기구 준비를 비롯한 새해농사차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감자농사와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음.

○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자(민주조선 1.16)

- 올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이를 위해 농업부문 일꾼들이 앞장서야 할 것임.
- 일꾼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작전을 바로 세워야 하며 지난해 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영농계획작성과 물질적 준비계획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또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 농사차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임. 이를 위해 각지 농촌들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많이 심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을 가져야 함. 우량품종의 종자확보를 위해 힘써야 하며 더불어 이미 마련해놓은 종자보관관리도 잘 해야 함.

-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거름을 빨리 포전에 실어내야 함.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여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함.

○ 새해농사차비를 착실히(민주조선 1.17)

- 동림군 잠봉협동농장에서는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거름생산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거름생산에서는 제 1, 5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앞서나가고 있음. 이들은 주체적 자세를 가지고 매일 수백 t의 거름을 생산해내고 있음.
- 농장에서는 트랙터와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진거름을 실어들이고 풀거름과 복데기에 뒤섞어재워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함께 농기계, 농기구들도 질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새해농사차비를 다그치고 있음.

○ 농사차비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민주조선 1.18)

- 강서군의 일꾼들은 올해에 작업반들에서 생산해야 할 거름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꾼들은 농장의 모든 노력과 수단을 농사차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해 직단적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생산에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착실하게 알려주고 있음.
- 또한 도시거름을 많이 실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내부에 비를 적극 동원하여 운반수단을 효과 있게 이용하면서 질 좋은 도시거름 실어들이기 실적을 계속 높이고 있음.

○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벌(민주조선 1.20)

- 당조직의 지도 밑에 구성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훨씬 늘일 목표를 세움.
- 이를 위해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흙보산비료생산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음. 또한 거름과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

기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 가을걷이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전격적으로(로동신문 10.16)

- 룡천군은 며칠동안 지속되는 강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군일꾼들, 농장원들 모두 가을걷이에 매진하고 있음.
- 학흥협동농장 제 5작업반 탈곡장에서도 낱알털기가 한창임.
- 룡암포협동농장의 관리일꾼들과 작업반장들은 가을걷이전투조직에 한창임. 트랙터를 개조하고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도 넉넉히 마련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고 있음.

○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로동신문 10.16)

- 올해 가을걷이 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가 예전보다 몇배나 힘들지만 신암협동농장은 가을걷이가 한창임.
- 제 7작업반 초급일꾼들과 제 4작업반 농장원들이 꼼꼼하게 가을걷이 전투를 하고 있음.

○ 농촌들에서 벼 가을걷이가 한창(로동신문 10.18)

- 김정일은 협동농장들에서 모든 노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여 곡식을 제때에 걷고 낱알털기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함.
- 재령군, 신천군에서는 경제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마련하여 능률적으로 가을걷이에 임하고 있으며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 안의 협동농장들도 조직을 만들어 가을걷이에 속도를 내고 있음. 연안군, 배천군에서도 벼가을걷이가 한창임.
-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농장일꾼들은 가을걷이를 제때에 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리고 있음.

○ 쿠바공화국대사관과 영국대사관 성원이 가을걷이를 도움(로동신문 10.16)

-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파노 주조 쿠바 공화국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룡성구역 조선쿠바친선 화성협동농장의 가을걷이를 도움.

- 존 에버라드 주조 영국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평성시 백송협동농장의 가을걷이를 돕고 지원물자를 보내줌.

○ 가을걷이집중정치사업 활발(로동신문 10.23)

- 동림군당위원회에서 가을걷이에 나선 군안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집중정치사업을 벌임.
- 마성, 룡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초급선전일꾼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청강, 월곡, 청송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 또한 가을걷이에 집중하고 있음.

○ 가을걷이의 기상(로동신문 10.23)

- 조건이 어려울수록 작전을 바로 세우고 지휘를 잘해야 많은 생산고를 올릴 수 있다는 김정일의 말에 따라 태천군에서는 능숙하게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하고 있음.
- 낱알털기는 한해 농사를 마감짓는 매우 중요한 영농작업이기 때문에 신봉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노동력을 동원하고 탈곡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가을걷이를 다그친다(민주조선 10.24)

- 곡산군안의 협동농장들이 가을걷이로 한창 바쁨. 곡산군에서는 가을걷이를 짧은 기간 안에 질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기계와 탈곡기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소농기구를 준비하였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가을걷이준비부터 시작하여 낱알털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현실조건에 맞게 가을걷이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있음.
- 평암, 룡리협동농장에서는 면밀한 계획 하에 가을걷이를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큰 비로 피해를 많이 입은 덕흥, 읍, 산북협동농장의 농장원들도 가을걷이에 한창임. 신흥, 대성, 석교협동농장에서도 제때에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하여 트랙터 등의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룡현, 지식, 계림, 송림협동농장의 농장원들도 집단적 혁신 속에 가을걷이 성과를 높이고 있음.
-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 또한 가을걷이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농장에 보내주어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을걷이에 동원된 성, 중앙기관의 정무원들은 농장원들 못지 않게

일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가을걷이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10.25)

- 평산군에서는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온 힘을 기울여 가을걷이에 집중하고 있으며, 낱알털기를 위하여 전투조직을 면밀히 만들고 있음. 군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들을 이용하여 실적을 높이고 있음.
- 탄교, 한포, 해월, 상암협동농장에서도 가을걷이가 한창이며 군안의 노동자, 사무원들도 가을걷이에 한몫을 하고 있음.

○ 곡식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30)

- 한알의 낱알이라고 허실함 없이 말끔히 거들어들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말에 따라 김형직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곡식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당조직의 지도 하에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하나씩 맡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 혁들은 강냉이, 콩, 벼 등 곡종별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운중협동농장, 연포협동농장, 증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조직을 세워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다그친다(민주조선 11.2)

- 구장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 위원회 일꾼들은 협동농장 일꾼들과 힘을 합쳐 작업반, 분조들에서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룡철, 수구협동농장들에서도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룡철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애국 열의를 안고 일숨씨를 발휘하고 있으며 수구협동농장에서도 운반수단들의 만가동을 통하여 능률을 높이고 있음.

○ 가을걷이전투에 모든 힘을 총동원하자(민주조선 11.7)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는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 따라서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시행해야 하며, 벼단꺼들이기를 낱알털기에 앞서 실행해야 함.
- 트랙터와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해야 하며 협동농장에서는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야 함. 곡식을 한 곳에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좋은 품질의 낱알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꺼들인 벼단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공들여 지은 곡식을 허실 없이 말끔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 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며, 농촌지원자들의 성실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 청단군은 올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군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꼼꼼한 자세가 필요함. 구월, 청정협동농장들에서는 혁신의 기상으로 벼단실어들이기에 전력하고 있으며 신생, 룡포협동농장에서도 농기계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낱알털기에 집중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성원들이 가을걷이를 도움(민주조선 11.8)

-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7일 순안구역 조중친선 택압협동농장의 가을걷이를 도움.

○ 애써 지은 낱알을 허실 없이(로동신문 11.9)

-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은 농장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빠르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펼치고 있음. 또한 교대 당 낱알털기계획을 정확히 하달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총화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농장원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있음.

- 제 3작업반, 제 5, 1작업반에서도 탈곡기를 만가동하여 낱알털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노력조직, 교대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로동신문 11.10)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낱알을 허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에따라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협동농장을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노동력과 운반수단들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업장마다 혁명적 분위기가 끓어 넘치고 있음.

- 만경대구역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수리정비하고 있으며, 리현협동농장을 비롯한 사동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조직사업을 정비하여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탈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탈기를 다그쳐 올해농사를 빨리 마무리하자(로동신문 11.11)

- 재령군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꾼은 낱알탈기전투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지휘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군급기관 일꾼들이 협동농장 농산작업반들을 하나씩 맡고나가 탈곡장을 타고 앉아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이며 낱알탈기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하고 있음.
- 군일꾼들은 낱알탈기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낱알허실을 없애는데 각별한 힘을 쏟고 있으며 군에서는 교대당 3-4명의 인원을 조로 편성하여 벼짚 속에 묻어나오는 낱알을 골라내도록 하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탈기를 제때에(민주조선 11.11)

- 각지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꾼들은 올해 농사를 빨리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이 앞장서도록 사업을 박력 있게 추진하고 있음.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직전개하고 있음.
-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정치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해당 단위의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탈기정형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실적을 높이는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필요한 물자와 자재를 적극 보장해주고 있음.
- 강서군 청산, 평원군 원화,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평안남도의 현지도단위들이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탈기에 진력하고 있으며, 재령군 재천, 벽성군 서원,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황해북도, 황해남도, 안변군 천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동해안의 현지도단위 일꾼들도 불굴의 의지로 가을철 농사를 다그치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탈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로동신문 11.13)

- 낱알탈기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원군의 군당위원회는 낱알탈기전투를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했으며 군책임일꾼들이 협동농장들을 하나씩 맡아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음.
- 제 1작업반에서는 부림소와 달구지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였으며 제 4, 3, 2작

업반에서도 모든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벼단실어들이기전투를 하고 있음.

- 광산군, 덕성군에서도 농기구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벼단꺼들이기, 낱알털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이를 통해 짧은 기간에 낱알털기가 종료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됨.

○ 모든 역량을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집중하자(로동신문 11.16)

- 지난 8, 9월 증산군은 극심한 홍수를 겪어 많은 협동농장들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농작물이 비바람에 넘어져서 결실을 볼 수 없게 되었음. 손실이 큰 만큼 군에서는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걷어들여 털어내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음.
- 만포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풍정협동농장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에는 군일꾼들이 내려가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힘 쏟고 있음.
- 송학, 구련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단꺼들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탈곡기수리정비 작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으며 룡봉, 동삼협동농장에서 또한 낱알털기에 힘을 쏟고 있음. 관해, 월현협동농장에서는 논판에서 벼단을 운반수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꺼내다 동가리를 치면서 힘차게 추진하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로동신문 11.17)

- 서해곡창 열두삼천리별안의 농촌들에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마치기 위해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 실적이 점차 오르고 있음.
- 속청군안의 일꾼, 농업근로자들은 도의 알곡생산을 늘리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군농업경영위원회의 일꾼들은 농장일꾼들과 합심하여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조속히 끝내기 위한 포전별, 날짜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운반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지원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책임성을 높이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룡흥, 운송, 원풍협동농장의 일꾼들은 전력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낱알털기의 모든 공정이 잘 맞물리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고 매일 작업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작업반, 분조들이 그날 과제는 그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해 총돌격(민주조선 11.17)

- 은률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낱알털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

위원회에서 전투작전과 지휘를 짜임새있게 하고 있음. 구월협동농장에서는 낱알허실을 막기 위해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판해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고 낱알털기속도를 높이고 있음.

-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2중 3대혁명붉은기 제 5작업반과 3대혁명붉은기 제 1, 청년작업반의 농장원들, 제 11, 2 작업반의 농장원들도 벼단꺼들이기를 위해 작업조직을 짜고 있음.

○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로동신문 11.18)

- 안악군과 연안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타개하며 빠른 기간에 모든 벼단을 탈곡장에 실어들여 낱알털기를 끝내기 위해 온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그리하여 안악군 경지, 룡산, 로암, 월정, 월지협동농장, 연안군 소정협동농장과 개안농장,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벼단을 전부 실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끝낸 협동농장, 작업반대렬이 늘어나고 있음.
- 평안남도 열두삼천리별의 일꾼, 농업근로자들은 면밀한 계획 하에 트랙터, 달구지 등 모든 운반수단과 노력을 벼단실어들이에 들고 있음. 평안북도에서는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받아들여 농사일을 꼼꼼히 하고 있음.
- 안변군의 사평협동농장, 읍협동농장, 비산협동농장, 학천협동농장에서도 낱알털기 전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낱알털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11.21)

- 평원군 매전협동농장의 일꾼, 농장원들이 낱알털기에 집중하고 있음. 올해 이 농장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품종의 벼종자를 받아들여 다음해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으며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시비체계를 대담하게 받아들여 군적인 알곡생산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룩했음.
- 제 6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제일 기세좋게 낱알털기를 하고 있으며 제 8작업반에서는 부족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단위당 시간 내에 많은 낱알을 털어내고 있음.

○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할 의지로(로동신문 11.22)

- 선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최근 많은 탈곡기를 ‘남농 1호’로 개조하고 만가동하고 있음.

- 평강군안의 협동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계획을 짜고벼집 속에 한알의 벼알도 묻어나가지 않도록 주인답게 일해나가고 있음.
- 삼강협동농장 일꾼들은 농장원들에게 애써 지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하지 않고 털어내야 농사지은 보람도 있고 정보당 수확고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실례로 들어가며 대중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올해농사를 빨리 결속하자(민주조선 11.22)

- 한해농사를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것은 일꾼들의 조직지도사업에 달려있음. 탈곡기를 비롯하여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이용율을 높이는데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함.
- 각지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농장의 물질기술적역량을 옹게 동원하여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해야하며 낱알털기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업조직도 꼼꼼히 해야 함.
- 서흥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당면한 낱알털기를 빨리 끝내기 위한 조직고 지휘를 짜임새 있게 짜고 있으며 가창협동농장도 낱알털기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음. 대평, 신당협동농장에서는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로동신문 11.24)

- 웅진군안의 협동농장들은 한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조직사업을 짜고 있으며 군안의 모든 노력, 운반수단들이 벼단실어들이기에 집중되어 매일 많은 면적의 벼단을 실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 단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노력, 기계수단을 낱알털기에 집중하게 하는 한편 탈곡기수리정비에 힘을 넣어 기대마다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 길주군 덕신협동농장에서는 일꾼들이 작업반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이 낱알털기에 총동원되도록 조직사업을 꼼꼼히 세우고 있음.

○ 낱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민주조선 11.25)

- 평안남도 농촌에서는 한해 애써 지은 곡식을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해 낱알털기를 힘껏 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조직사업을 짜고 있으며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로 하여금 낱알 허실을 막는데

기술적 지도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강서군에서는 낱알털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잘 하고 있으며, 송학협동농장을 비롯한 안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종합탈곡기와 능률 높은 이동식탈곡기에 만부하를 걸어 낱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낱알털기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로동신문 11.27)

- 낱알털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한해 농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아는 은파군안의 일꾼, 농장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낱알털기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 은파군에서는 예비부속품들을 넉넉히 마련하여 모든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며 군의 일꾼들은 낱알털기 현장으로 내려가 열의를 보이고 있음.
- 은파군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낱알털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힘을 쏟고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서서 풀어주며 낱알털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 낱알털기를 불이 번쩍나게(민주조선 11.28)

- 온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낱알털기를 빨리 끝내야 위해 진력하고 있음.
- 일꾼들은 협동농장에서 탈곡기의 가동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농장원들모두가 탈곡기 이용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정, 보석협동농장에서는 벼단꺼들이기를 제일먼저 끝낸 기세를 이어 낱알털기에서도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동삼, 룡봉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또한 낱알털기에 진력하고 있으며 운하, 대오를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낱알털기속도를 높이면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

○ 마지막까지 기세를 늦추지 않고(민주조선 11.29)

- 송화군안의 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낱알털기 마감단계에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교대조적을 짜는 등 진력을 다하고 있음.
- 홍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애써 지은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군적으로 노력하여 낱알털기를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기록함. 그 뒤를 이어 온천협동농장이 나가고 있음.

- 원당협동농장의 농장원들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며 낱알털기를 마지막까지 다그치고 있음. 룡호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낱알털기의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음.

○ 한단의 벼를 털어도 말끔히(로동신문 11.30)

- 염주군 하석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낱알털기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제 2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주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낱알털기에 임해 낱알털기에서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 3, 5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안의 작업반에서는 초급일꾼들이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낱알걷기를 지휘하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 한해농사를 성과적으로 끝낼 의지로(로동신문 12.3)

- 평원군 남산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제3작업반 탈곡장에서는 낱알털기가 한창임. 제6작업반은 수송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직을 세워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실적을 높이고 있음. 제1작업반에서는 낱알털기교대조직을 만들어 밤낮 탈곡장을 떠나지 않고 낱알털기실적을 높이고 있음.
- 북청군 종산협동농장에서는 탈곡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단위시간 동안 많은 낱알을 털어내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있음.

3. 밭농사

- 전국각지에서 콩 가을걷이를 서두름에 따라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가을걷이 이후 콩 탈곡을 빠르게 하기 위해 노동력이 투입되고 농기계가 지원되고 있으며 콩농사가 벼농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 강냉이의 철저한 보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확철을 맞이하여 가을무우와 배추가 수확되었음.

□ 콩

○ 콩가을걷이 마감단계(로동신문 10. 20)

- 전국각지에서 콩 가을걷이 마감단계에 들어섬. 만경대구역에서 제일 먼저 콩 가을걷이를 끝냈으며 력포구역, 사동구역,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강남군에서도 콩가을걷이를 완전히 끝냄.
-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콩가을걷이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에서도 콩 가을걷이를 서두르고 있음.

○ 콩탈곡 마감단계에서(민주조선 11. 4)

- 개천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콩탈곡이 마감단계에 들어섬.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콩탈곡을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조직과 지휘를 잘 하고 있음. 위원회일꾼들은 시농기구공장의 역할을 높여 탈곡기정상가동에 필요한 치차류를 비롯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음.
- 콩밭 면적이 제일 많은 대각협동농장, 동림협동농장에서도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콩탈곡속도를 높이고 있음. 룡운, 청룡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시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하나되어 콩탈곡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콩탈곡기를 포전에 전개하고(로동신문 11.21)

- 무산군 두만협동농장에서는 콩털기가 한창임.
- 전기사정도 좋지 못하고 연유도 넉넉하지 못하여 트랙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계획을 잘 짜서 이러한 난관들을 떨쳐나가고 있음.

○ 다음해농사차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12.13)

- 랑림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다음해 농사에 쓸 감자와 밀, 보리종자확보 및 보관관리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며 다음해 농사차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기상기후조건과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이 사업은 읍, 문악, 서중, 련화협동농장들이 잘해나가고 있음.
- 군에서는 감자종자는 물론 밀, 보리 등의 작물의 종자보관관리사업에도 힘쓰고 있으며 모든 협동농장들은 거름생산을 경쟁적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소농기구와 영농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콩농사에서 틀어쥐 고리(로동신문 12.14)

- 올해 송원군에서는 콩농사면적을 대폭 늘리고 콩농사에 힘을 쏟고 있음.
- 콩농사를 부업식으로 인식하는 사고를 바꾸기 위하여 군책임일꾼은 다수확품종의 콩농사가 벼농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콩농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노력함.
- 콩농사에서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지대적특성에 맞는 콩종자를 심었으며 콩밭가꾸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록 하도록 요구함.

○ 콩더미를 높이 쌓을 불같은 열정 안고(로동신문 1.10)

- 고산군에서는 콩밭의 지력을 높이는 것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음.
- 룡지원, 량사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콩밭에 칠 소석회를 충분해 생산해놓는데 만족하지 않고 소석회생산을 부쩍 올리고 있음.
- 길주군에서는 콩전문분조원들이 높은 열의를 안고 거름실어내기전투에 참여하고 있음.

○ 콩농사를 인민군대처럼(민주조선 1.19)

- 서흥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콩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콩농사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하고 있음.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원회일꾼들은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콩종자를 원만히 확보한데 기초하여 적지를 바로 정하고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쏟고 있음.
- 콩농사를 잘짓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심는것과 더불어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농장들에서는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질 좋은 거름을 콩밭에 한줌이라도 더 많이 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냉이

○ 강냉이보관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11.3)

- 천내군 읍협동농장에서는 따들인 강냉이들을 탈곡장에 퍼놓아 일정하게 말려 보관하여 강냉이 보관관리를 착실히 하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강냉이 창자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의 책임성, 역할을 높여 한이삭의 강냉이도 변질되거나 허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작업반들에서의 낱알보관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미흡한데가 있을세라 간간히 따져가며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있음.

□ 채소

○ 가을무우와 배추수확시기 (노동신문, 11.4)

- 가을무우는 해당 지방에서의 땅면 최저온도가 0℃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끝내는 것이 좋음. 가을무우는 수확하기 7~10일 전에 빨리 크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따르는 온도조건을 잘 타산하여 수확해야 함.
- 가을배추의 경우에는 수확하기 5~7일 전에 통을 묶어야 함. 배추는 평균기온이 8℃ 될 때까지 자라는데 통을 묶어주면 잎이 서로 겹쌓여지므로 배추 통안의 온도가 바깥온도보다 2~3℃ 더 높아서 속잎이 잘 자라게 됨. 가을 배추 수확은 해당 지방의 최저 기온이 -2℃되는 때에 하는 것이 좋음

4. 감자농사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수확감자품종의 육성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양강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감자수확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확된 감자가 상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는 감자전분 생산능력확장공사를 통하여 감자가공처리능력을 신장시켰음.

□ 감자수확

- 감자 캐기에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10. 5)
 - 백두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삼지연군 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감자 캐기를 지원하고 있음.
 - 보서, 통신, 홍계수, 중흥, 포태농장 등 군 안의 농장에서는 모든 농기계를 총 동원하여 감자 캐기와 운반, 가공처리를 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감자수확에 집중(로동신문 10. 6)
 - 양강도 안의 농촌에서는 모든 역량을 감자수확에 집중하고 있음.
 -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군별로 감자 캐기 일정을 잡고 농장을 지원하고 있음.
 - 대홍단군, 삼지연군, 백암군, 보천군, 운흥군, 갑산군, 삼수군에서는 군 안의 모든 운반수단을 감자수확에 집중하고 있으며 감자를 캐는 족족 감자종자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음.
- 감자캐기전투장에 혁명적 열정 차넘친다(로동신문 10. 9)
 - 북부 고산지대인 백암군 안의 농장에서는 감자 캐기가 한창임.
 - 덕립, 옥천, 삼수평 농장을 비롯한 개척지구의 농장들과 상담, 동계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온 군이 감자농사에 주력하고 있음.

- 금년에는 많은 비가 내려 감자수확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현재 감자수확과 수송, 처리에 여념이 없으며 전분공장도 완전가동하고 있음.

○ 질 좋은 감자전분 생산(로동신문 11.6)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받들어 대흥단감자가공공장에서는 모든 인력과 기계를 만가동하여 감자전분생산에 온 힘을 기울여 현재 지난해 같은시기보다 더 많은 감자를 가공처리하였음.
- 공장에서는 감자가공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감자전분생산능력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자와 기능공들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기술혁신 쇄신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에따라 지난 시기보다 수백 톤의 감자를 더 가공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감자가공품생산에서 혁신(로동신문 11.24)

- 대흥단감자가공공장이 올해 감자전분생산을 2달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둠. 이를 위해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설비들을 기술재건함으로써 감자처리능력을 지난해에 비하여 1.2배로 높였음.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로동신문 12.1)

- 김정일은 “감자연구소에서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더욱 많이 육종하며 감자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합니다.”라고 말함.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 연구소는 우량품종의 감자를 나라의 풍토에 맞게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음.
-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는 다수확감자품종들의 육성과 생산공정을 더욱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감자생산지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알알이 정성 담아(로동신문 12.3)

- 대흥단군 창평농장 제2작업반의 일꾼들은 자주 감자종자저장고에 나가 종자보관상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며 감자종자관리를 잘하고 있음. 또한 작업반에서는 감자종자관리를 맡은 작업반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도 힘쏟고 있음.
- 작업반은 한 알의 감자라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를 정확히 보장하

고 있음.

○ 감자농사잡도리를 든든히(로동신문 1.10)

-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밭에 내야 합니다.”라고 말함.
- 림산, 백암, 도내협동농장에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경쟁적으로 하여 수백 톤의 질 좋은 거름을 포전에 실어냄.
- 군안의 공장, 기업소근로자들, 년로보장자들까지 거름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2만여점의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많은 진거름을 모아 농장포전들에 실어내고 있음.

○ 더 높은 감자농사성과를(민주조선 1.19)

- 량강도에서는 정당 수확고가 높은 품종의 종자를 더 많은 면적에 심으며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지을 계획임. 또한 노력 관리를 잘하고 기계화의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을 위하여 일꾼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있으며, 대홍단군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5. 축 산

-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 풀먹는 집짐승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의 축산정책에 따라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량품종 생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더불어 집짐승먹이의 원만한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집짐승들의 겨울나기 준비가 빈틈없이 실시되고 있음.

□ 축산 정책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민주조선 10.24)

- 청단군 운곡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자신이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축산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몇해 전 농장에서는 당 조직의 지도 하에 초식 집짐승의 증가를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염소기르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농장의 염소 숫자가 종전보다 1,000여 마리 더 늘어났음.

○ 집짐승 겨울나기 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11.3)

- 김정일은 “소와 양, 토끼와 계사니 같은 풀먹이 집짐승을 기르는데서 겨울철 먹이를 잘 장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함. 당의 축산정책을 받아들여 자강도 안의 축산부문 일꾼, 농업근로자들은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실시하여 올해 소, 염소, 토끼 등 풀먹는 집짐승 숫자를 늘림. 이에따라 집짐승들의 겨울나기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성원군, 장강군, 초산군, 고풍군, 우시군, 위원군이 앞장서서 풀먹는 집짐승겨울철 먹이 마련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있으며 군일꾼, 축산부문 일꾼들은 목장, 풀판작업반, 염소작업반, 토끼작업반등의 단위에 내려가 근로자들에게 풀먹는 집짐승겨울나기준비를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리고 있음.

○ 염소기르기에 관한 전국기술혁신경기진행(민주조선 11.9)

- 염소기르기에 관한 전국기술혁신경기가 축산전문가들과 일꾼, 근로자들의 관심 속에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됨.
-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이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기술혁신목표를 옹계 정하고 조직정치사업과 과학기술지식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종업원들을 대중적 기술혁신으로 힘 있게 불러일으킴.
- 경기기구나 기술혁신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염소마리수와 젖 생산, 젖가공품을 늘리는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기술혁신을 통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균 처리방법과 먹이가공방법을 도입하여 먹이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감.

○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민주조선 11.9)

- 김정일은 “축산업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고 거름을 내어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음.
- 지금은 축산부문에서 집짐승겨울나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며, 축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충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는 근로자들에게 고기와 알을 비롯한 축산물을 많이 생산보장 하겠다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집짐승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함. 축산단위들에서는 겨울에 기를 집짐승 마리수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먹이준비를 해야 함.
- 우리가 추우면 집짐승들이 겨울을 나는데 지장을 받게 되므로 축산 단위들에서는 생리적 특성과 수의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집짐승 우리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하며 가공먹이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함.

○ 축산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조직정치사업(로동신문 11.15)

- 각지 당조직, 당일꾼들은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길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대중운동으로 토끼기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일꾼들이 군토끼종축장을 꾸리는데 앞장서 짧은 기간에 23동의 굴형식토끼우리가 건설되었으며 3,200마리의 종축토끼를 확보하였고 올해 6,780여 마리의 종자토끼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음.

-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가정에서 10마리 토끼 기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여마리로 토끼곰을 만들어 주요명절때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골고루 공급하였음.

○ 축산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조직정치사업(로동신문 11.26)

- 토끼를 많이 길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토끼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각지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
- 군토끼증축장에 의거하여 군에서는 지난 1년동안에만 수천마리의 우량품종의 새끼 토끼를 생산하여 군안의 협동농장에 공급하였으며, 군당책임일꾼은 읍협동농장 축산작업반과 양정사업소, 중은중학교를 본보기로 하여 굴형식토끼 우리 건설과 투끼사양관리에서 높은 실적을 내도록 사업을 하고 있음.
- 공장과 농촌, 학교, 가정세대들에서 토끼기르기와 관련한 시범단위를 하나씩 정하고 그 단위들의 모범을 실물로 보여주는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열의를 고취시키면서 토끼기르기가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을 받침해나가고 있음.

○ 우리 당 축산정책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로동신문 12.29)

- 2007년은 노력하여 마련한 축산기지들이 성과를 내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뜻깊은 해임.
- 광포오리공장은 오리고기 생산에서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우량품종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벌려 더 많은 염소를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젖은 80여 톤, 고기는 20여 톤이나 더 생산하였음.
- 축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우량품종 생산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 축산관리

○ 훌륭하게 꾸려진 종합축사(민주조선 10.16)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축사는 매우 빈약하였으나 일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축산과학기술지식보급실, 수의고려약가공실, 콩가공장이 갖춰진 종합축사가 완성됨.
- 종합축사의 연건평은 수천㎡에 달하며, 염소, 토끼 등을 키우고 콩가공제품을 생산

하여 공장 구내식당에 보내주는 일을 함. 축산 관련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축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역할도 함.

○ 집짐승겨울나기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11.13)

- 평강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집짐승겨울나기준비를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또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북만, 신정협동농장들에서 집짐승우리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협동농장의 일꾼, 농장원들은 집짐승우리를 종전보다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음. 기산, 정동협동농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연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집짐승우리를 건설하고 있으며, 자체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설계를 받아들여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건설기일을 앞당기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마리수를 늘려(민주조선 11.14)

- 송원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염소, 양을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마리수를 적극 늘리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 실정에 맞게 풀먹는 집짐승기르기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면서 이 사업을 끈기있게 벌려나가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투쟁은 송관, 신양, 전창 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추진되고 있음. 송관협동농장에서는 풀관조성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으며 염소종자를 개량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염소마리수를 수천마리로 늘렸음. 월현, 양지, 신양, 송천협동농장에서도 겨울철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실정에 맞게 염소마리수를 늘리고 있음.

○ 영양가높은 먹이를 충분히(민주조선 11.15)

- 덕성군 직동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계절적 특징에 맞게 집짐승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먹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일꾼들은 여러 가지 먹이들의 영양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집짐승들의 영양상태에 맞게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합리적인 먹이 가공방법을 받아들여 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생물활성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거친먹이들을 잘 가공처리하여 먹임으로써 먹이

단위를 종전보다 낮추어 많은 연료를 절약하고 있음.

○ 겨울철먹이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11.21)

- 김정일은 “겨울철 먹이로는 칩과 아카시아잎 같은 자연먹이를 많이 마련하고 콩잎, 강냉이잎 같은 농업부산물들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것입니다.”라고 말함.
- 농장에서는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의 마리수가 늘어난 조건에 맞게 그 먹이보장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축산물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집짐승사양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이들은 유리한 지리적조건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자연먹이를 많이 준비하고 있음. 또한 공들여 준비한 먹이를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음.

○ 젓, 고기생산에서 최고기록(로동신문 11.25)

-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잘하여 젓과 고기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둠.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이 농장에서는 젓과 고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였던 지난해보다 젓은 80t, 고기는 30t이나 더 생산하였음.
- 농장일꾼들은 집짐승들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기르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지난 시기의 좋은 경험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풀먹는 집짐승마리수를 계속 늘릴 수 있었음. 그리고 젓과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했음.
- 특히 농장에서는 지난 여름 유례없이 무더기비가 오랜 기간 쏟아져내리는 조건에 맞게 수의방역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 그 덕을 톡톡히 보았음.

○ 집짐승먹이준비를 원만히(민주조선 11.28)

- 세포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다음해 축산물생산을 늘리는데 겨울철집짐승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겨울철 집짐승먹이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중평협동농장에서는 수십정보에 달하는 먹이기지에서 생산한 먹이작물을 모조리 건어들이는 한편 산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자연먹이를 많이 모아들임. 또한 집짐승들의 겨울나기에 필요한 마른먹이, 즈먹이, 절임먹이를 준비하고 수

십 t의 좁과 딱감자, 청애콩 등을 마련함.

- 유읍협동농장에서도 많은 새끼를 받아내는데 먹이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강냉이짚, 콩짚 등 각종 먹이를 충분히 마련함.
- 군안의 협동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은 겨울철 날씨조건과 집짐승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배합먹이로 영양관리를 잘하면서 집짐승마리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음.

○ 기대되는 다음해 축산(로동신문 12.4)

- 룡강군 작업반마다 집짐승겨울나기준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룡강군 읍협동농장의 다음해 축산이 기대됨.
- 올해도 룡강군 읍협농장에서는 많은 새끼돼지와 새끼토끼 뿐만 아니라 많은 오리 와 닭을 생산하였음. 올해에 여러 가지 많은 집짐승을 길러 그 덕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해 축산물생산계획을 높이 세움.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난알짚과 나물, 마른 풀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돼지우리, 토끼우리, 염소우리를 잘 보수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고 있음.

○ 계남목장 개건보수공사 진행(로동신문 12.9)

- 황해남도 일꾼, 근로자들이 계남목장을 개건 보수함.
- 목장의 축산 제1분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데 기초하여 일꾼들은 이미 계획된 돼지우리 지붕과 보온벽공사만이 아니라 기초, 벽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단계별 공사를 진행함.
- 1년 내에 방대한 목장의 재건보수공사를 끝냄으로써 목장을 집짐승 사양관리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축산물생산기지로 훌륭히 변모시키는 성과를 거둠.

○ 계절적조건에 맞게(민주조선 12.13)

- 량강도안의 농업부문 일꾼, 근로자들은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계절적조건에 맞게 집짐승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다음해 축산물생산계획을 높이 세운 위원회에서는 이미 시, 군들과 산하 축산단위들에 겨울철에 길러야 할 집짐승마리수를 확정해주고 먹이, 우리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집짐승사양관리의 수의방역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자주 알려주고 있음.

- 대흥단군과 풍서군에서도 겨울철집짐승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갑산군과 김형권군의 축산부문 근로자들도 겨울철집짐승사양관리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해산토끼 종축장을 비롯한 여러 축산단위들에서도 집짐승들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잘하고 있음.

○ 집짐승사양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12.18)

- 연포, 대웅, 부전협동농장들에서는 부림소와 염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있는 실정에 맞게 먹이준비를 잘함.
- 대웅, 부전협동농장에서는 이미 준비한 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집짐승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먹이주기와 우리안의 온도보장을 잘하고 있음.
- 포평, 고읍협동농장들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농장들에서는 축산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 역할을 높여 계절적 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하고 있음.

○ 집짐승을 더 많이(민주조선 12.31)

- 개천시 봉화협동농장에서는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해 농장에서 작업반에 축산물생산목표를 세워주고 제반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 제 2작업반에서는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으며 제 4, 5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농사일의 여가시간에 집짐승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돼지

○ 돼지공장 건설(로동신문 10.20)

- 함경남도 함주군 추상지구에서의 현대적인 돼지공장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있음. 산기슭 비탈진 곳에 계단식으로 공장과 돼지우리를 배치하여 부지를 적게 들이면서도 먹이공급과 배설물처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도도시설계연구소, 함흥화학설계사업소의 일꾼들이 돼지공장을 설계하였으며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건설기계공장, 가담기계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상설비를 생산하였음.

○ 사리원돼지공장, 사리원닭공장 조업(민주조선 10.31)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신 설비들로 꾸려진 사리원돼지공장이 건설되고 사리원 닭공장이 개건됨. 조업식이 30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어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관 홍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용선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과 일꾼들이 참가함.
- 조업보고와 토론에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하고 설비 관리, 기술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높은 생산수준을 이룰 것임을 말함.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공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강조함.

○ 함주돼지공장 조업(민주조선 11.29)

- 종축사, 육성사, 비육사, 먹이가공장 등의 생산건물들이 갖춰져 있는 함주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27일 현지에서 공장조업식이 진행됨.
- 홍성남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풍기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표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조업식에 참석함.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설비조립연합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집체적 지혜와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힘 있게 지원하여 돼지공장조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음.

○ 원산돼지공장 건설 적극 추진(로동신문 12.6)

- 현대적으로 건설되는 원산돼지공장은 9,200여㎡의 부지면적에 생산건물과 보조 및 비생산건물을 갖춘 큰 공장임.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에서는 원산돼지공장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돼지공장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철강, 목재 등 자재를 우선 보장해 주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돼지공장을 새로 건설(민주조선 12.14)

- 평안북도에서 돼지공장을 새로 건설함.
- 새로 건설된 돼지공장은 넓은 부지면적에 생산건물과 보조 및 비생산건물들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설비들이 현대화되어 있음. 공기수감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모

든 설비들이 컴퓨터로 조종가능함.

□ 토끼

○ 토끼 기르기를 잘한다(민주조선 11.1))

- 녕원군 룡성협동농장에서는 당의 축산정책에 맞추어 토끼 기르기에 힘을 쏟고 있음. 농장에서는 종축작업반에 합리적인 토끼우리를 건설해놓고 농장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만들어 모든 작업반에 일반화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먹이문제를 해결하여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도록 하고 있음.
- 제 3, 4작업반에서도 토끼기르기를 잘하고 있는데 작업반들에서는 토끼의 영양관리를 잘하면서 수의방역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농장 안의 농가들에서도 토끼 기르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농가들에서는 토끼 기르기의 유익성을 잘 알고 5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에 큰 힘을(민주조선 11.9)

- 문덕군 양지중학교에서는 지난 기간 토끼기르기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토끼기르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도 활발히 벌리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토끼기르기 지식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로동신문 11.2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토끼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7배나 늘어났으며 농장원 가정들에서도 토끼기르기를 많이 하여 그 마리수가 지난해의 1.5배 이상 늘어났음.
- 각 도, 시, 군 들에서도 토끼축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토끼우리건설과 개건보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올해 상반기에 지어진 새로운 형식의 토끼우리는 260여동의 1만 5천여㎡에 달함.
- 태천토끼종축장의 일꾼, 근로자들도 올해 상반기에 1만 8천여마리의 종자토끼를

생산하여 도안의 시, 군에 공급하였으며 장흥토끼종축장에서는 올해 1천마리능력의 토끼우리를 새로 짓고 6정보의 먹이풀밭을 더 조성함, 황해북도와평안북도에서는 토끼기르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토끼종축장은 물론이고 협동농장에서도 알먹이기계를 마련해놓고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토끼마리수를 더욱 늘려가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끈기있게(민주조선 11.27)

- 황해남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토끼기르기를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린 결과 올해도 많은 종자토끼를 확보한데 기초하여 토끼 고기와 털가죽생산이 늘어났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당조직의 지도 밑에 토끼기르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끈기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임새있게 펼치고 있음.
- 송화군, 배천군, 신천군, 삼천군, 강령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얻은 경험을 살려 우량품종의 어미토끼들을 잘 관리하고 있음. 은률군과 연안군, 벽성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계절적 조건에 맞게 토끼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다음해 새끼토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토끼기르기 운동이 나날이 활발히 벌어지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안악군과 삼천군 안의 수의방역기관들에서는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각지 학교의 새끼토끼가 지난해보다 2.5배 장성(로동신문 11.28)

- 각지 학교들에서 토끼기르기를 활발히 벌려 올해 들어와 10월 말까지 새끼토끼의 양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5배로 장성함.
- 각지 학교들에서는 토끼의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새끼토끼를 늘리는데서 성과를 거둔 것임. 삼흥중학교, 평양룡궁중학교, 평성시 월포중학교, 숙천군 검산중학교에서는 학생들 속에 토끼기르기의 유익성을 선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어미 토끼들의 마리당 새끼낳이률을 높임.
- 학교들에서는 토끼우리를 실정에 맞게 짓는 것과 함께 풀밭을 새로 조성하고 효능 높은 예방약과 치료약들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는 등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자강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안의 학교들에서도 분산사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집단사육을 결합하여 토끼기르기를 잘 해나가고 있음.

○ 농가에서 토끼기르기를 힘있게(민주조선 1.9)

- 숙천군 숙천농장에서는 종축작업반은 물론 모든 농장원세대들에서 토끼기르기를 위해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농장원세대들에서 많은 토끼를 기르도록 새끼토끼도 공급 해주면서 자신들부터 이 사업에 앞장서나가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1.11)

- 광산군에서는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개인 세대들에서 토끼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온 군의 관심 속에 토끼종축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토끼호동안은 깨끗하고 산뜻하며 먹이가공실 또한 알맞은 먹이를 생산하고 있음. 토끼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는 만큼 성과도 눈에 보듯 명백함.

□ 소

○ 겨울철부림소관리를 잘하여(민주조선 12.14)

- 화평군 부남협동농장의 일꾼들은 부림소들의 영양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부림소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제 1작업반의 부림소관리공들은 영양가가 높은 먹이를 충분히 먹이는 등 부림소 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제 3, 5작업반의 부림소관리공들은 소우리를 제때에 청소하고 질 좋은 먹이들을 마련하여 소의 영양상태를 좋게 하고 있음.
- 부림소관리가 잘되어 부림소이용률이 높아져 농사차비실적도 부쩍 오르고 있음.

○ 부림소를 많이 길러(로동신문 12.30)

- 덕성군 월명협동농장 제6작업반에서 소를 많이 길러 다음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소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소관리에 대한 농장원들의 열의가 높아지게 하여 소마리수를 늘리기 시작함.
- 소마리수가 늘어나자 거름생산이 늘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반의 일꾼들은 부림소를 많이 길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고자 함.

○ 부림소관리를 잘하고 마리수를 늘여(로동신문 1.8)

- 동상협동농장은 농사짓기에 매우 불리한 곳에 있으나 부림소마리수를 늘리고 그 관리를 잘하여 몇해전부터 균적으로 제일 앞서나가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 있음.
- 부림소마리수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반에서는 공동으로 관리하던 부림소들을 농장 원가정들에 나누어줘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작업반에서는 작업원들이 부림소 관리를 잘하도록 월 1차씩 부림소품평회도 조직하고 노력일평가사업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 염소

○ 염소마리수를 늘여(민주조선 11.21)

- 고산군 란정협동농장에서 염소기르기를 잘하여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음. 농장에서는 염소기르기에 유리한 돌박산지구에 축산작업반을 통째로 옮기고 염소우리건설을 전망성있게 해놓았으며 종축염소를 많이 확보하였음.
-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농장에서는 염소우리와 먹이준비를 잘하는 한편 염소관리공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있음.
- 또한 염소를 많이 길러 덕을 보는 가정들을 소개하고 일꾼들의 가정부터 염소기르기에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염소기르는 세대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

□ 게사니

○ 게사니를 많이 길러(로동신문 12.11)

- 광산군 관상협동농장에서 게사니를 많이 길러 해마다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음.
-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게사니종자해결을 위해 고기생산량이 높은 좋은 품종의 게사니를 선택하여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음.
- 게사니를 많이 기러 좋은 점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기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임.

□ 닭

○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로동신문 12.12)

- 사리원닭공장이 생산성이 높은 닭종자와 사료보장대책을 세우고 공장을 재건하여 더 높은 생산고를 올리고 있음.
- 성금작업반과 종금작업반, 비육작업반을 비롯한 생산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선진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하여 닭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사리원닭공장은 매 호동에 현대적인 생산설비를 갖추고 보다 과학적인 닭사양관리 체계를 받아들여 고기와 알생산을 늘리고 있음.

□ 오리

○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에게 많은 오리고기를(로동신문 12.13)

- 북창오리공장 일꾼, 노동자들이 오리고기생산을 늘려 북창, 득장, 덕천지구의 여러 탄광 탄부들과 북창과 순천의 전력생산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음.
- 오리고기 생산증가를 위해 북창오리공장은 공장을 개건확장하였으며, 노동자들에게 기술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풀판조성사업

○ 풀먹는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를 수 있는 충분한 토대 마련(로동신문 12.31)

- 김정일은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해서는 풀판조성을 잘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올해 전국적으로 풀판조성 및 정리계획을 170% 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강도가 올해 풀판조성사업에서 큰 성과를 올림.
- 자강도에서는 산이 많은 유리한 조건에 맞게 자연풀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내어 풀판면적을 늘리고 이미 있는 풀판들을 잘 정리하여 풀판조성 및 정리계획을 300%이상 넘쳐 수행함.
- 함경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평안북도에서는 풀판을 많이 조성하여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의 토대를 마련해놓음.
- 농업성 일꾼들은 풀판조성을 전망성 있게 하기 위하여 채종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가하고 있음.

6. 농업기반

□ 미루벌 물길공사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자재 보장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명저수지에서 시작된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공됨. 미루벌 토지정리가 단계별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사리원시의 미곡리 토지 또한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물길공사

○ 물길뚫기에 계속 박차를(민주조선 11.6)

- 미루벌물길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함경남도의 일꾼, 건설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물길뚫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흥남비료련합기업소대대 건설자들 또한 깃발을 들고 나서 작업갱건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만덕광산대대, 락원군대대, 금야군대대, 함흥시대대 건설자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2.8 비날론련합기업소대대, 함주군대대, 고원군대대, 단천시대대, 부전군대대, 수동구대대, 덕성군대대를 비롯한 다른대대의 건설자들도 동발나무생산을 앞두고 굴진설비와 양수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작업갱과 기본갱건설에서 혁신을 보이고 있음.

○ 미루벌물길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로동신문 12.15)

- 김정일은 “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룡산려단의 1, 2대대는 공사조건이 어려운 구간의 하나인 수km의 굴뚝이를 맡아 낮과 밤이 없이 노력함.
- 룡산려단의 대대들에서는 착암공, 발파공 등 기능공들을 자체로 양성하면서 굴진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음.

- 미루벌물길공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와 화학공업성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으며, 농업성과 농근맹중앙위원회의 일꾼들은 물길건설자들에게 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고 있음.

○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에 큰 힘을(민주조선 12.26)

- 청단군인민위원회에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계절적조건과 매 작업 대상별 특성에 맞게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 현재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십만 m³의 토랑굴착공사와 계획된 잠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공사의 50%이상을 끝내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자연흐름식물길공사 기본적으로 완공(로동신문 12.28)

- 광명저수지에서 시작된 자연흐름식물길이 서해기슭 구월반 도로 뻗어간 청단관개의 말단에 연결됨으로써 그 주변의 수천 정보 논에 용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됨.
- 물길공사는 밑폭이 7m, 웃폭이 24m인 수십리의 흙물길과 5개의 다리, 천수십m의 물길굴, 2개의 잠관을 건설하고 20여개의 암거를 설치해야 하는 작업이었음.
- 도에서 강력한 공사 지휘부를 조직하고 굴착기,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와 자재 보장에 이어 착암공들도 선발하여 보내줌에 따라 기본적 완공이 가능했음.

○ 총공격전의 장엄한 포성(민주조선 1.4)

-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 1월 3일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이 발파로 어려운 대상의 하나로 나섰던 곡산간선물길 마지막대절토구간의 방대한 토랑을 날려보냄으로써 흙물길형성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앞당겨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음.
- 려단일꾼들은 혁신적이고 능숙한 전투조직과 지휘, 화선식정치사업으로 건설자들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공정별 작업이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지도를 짜고드는 한편 물길공사중앙지휘부와의 연계 밑에 발파자재들을 기동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음.

○ 2만산발파 성과적으로 진행(로동신문 1.6)

- 지난 3일 미루벌물길공사에서 2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
- 발파를 맡은 황해북도려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을 잇고 몰두하여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파준비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미루벌을 진감하는 2만산발파를 보장하였음. 물길공사에 떨쳐 나선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토지정리

○ 토지정리로 미루벌이 천지개벽되다(로동신문 11.13)

- 김정일은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라고 말함.
-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시에 이어 황해북도 미루벌에서 토지정리리가 시작되었으며, 미루벌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대자연개조사업임.
- 미루벌토지정리는 수백만㎡의 흙을 처리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로 황해북도토지정리돌격대지휘부에서는 미루벌토지정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불도저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서흥군돌격대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토지정리를 제때에 끝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미곡리의 토지가 훌륭히 정리된다(로동신문 11.24)

- “토지정리사업을 힘 있게 벌려 필요 없는 논두렁과 웅덩이, 돌각담을 없애고 재배면적을 더 늘려야 하겠습니까.”라는 김정일의 말에 따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토지가 훌륭히 정리되고 있음.
- 시당위원회에서는 정리되지 못한 미곡리의 수백정보 토지정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목표를 세우고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시키고 있으며 시에서는 기계화수단들과 기름, 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미곡리 토지정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시안의 공장, 기업소근로자들은 물론 가두인민반원들까지 토지정리전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안의 일꾼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토지정리가 하루가 다르게 성과를 거두

고 있음.

○ 뜻깊은 올해에 번듯하게 정리된 미곡벌(민주조선 12.14)

- 지휘부에서는 미곡리의 16만 3,000㎡의 토량을 처리하고 60여개소에 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조직을 조직함.
- 시공일꾼들이 설계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르는 토지정리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작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대별 토지정리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저수지

○ 자체의 힘으로 저수지를 건설

- 고원군에서는 고원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여 6개 협동농장의 농사에 필요한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으며 홍수피해로부터 많은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음.

7. 산 립

- 수림화, 원림화를 목표로 한 산림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운동이 진행되어 올해 6만 6천여정보의 산림이 조성됨.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예비노동력이 투입되고 생산설비가 만가동되고 있음.

□ 임업정책

○ 명언을 통한 교양사업을 철저히하여(로동신문 11.3)

- 김정일은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다.”라고 말함. 이를 받들어 사업소에서는 산림조성을 위해 사업을 면밀히 세우고 있음.
- 명언을 통한 교양사업은 양덕, 신양, 북창, 맹산, 녕원, 득장, 대흥의 공업림경영소들과 득장채 종립사업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곳 일꾼들과 산림감독원들의 노력에 의해 다음 해 나무모생산을 위한 수종별종자따기, 조림지들에 대한 원상복구, 양묘장보호를 위한 사방아계공사 등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 온나라를 푸른 숲으로 하루빨리 뒤덮이게 하는데 종자따기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녕원, 대흥, 덕천, 북창의 공업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의 뜻을 깊이 새기고 매일 맡은 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양덕, 신양, 맹산, 득장의 공업림경영소에서도 나무모관리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있음.

○ 임업생산의 정상화를 위하여(로동신문 11.4)

- 김정일은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이에 따라 관리국의 일꾼들은 도안의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 나가 생산자 대중 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도안의 임산사업소와 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큰물피해복구사업과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함께 하며 겨울철 준비를 하고 있음. 희천, 동신갱목생산사업소들과 송원, 고인, 성간임산사업소 노동자들은 자동차, 트랙터, 소발구를 이용하여 베어낸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길닦기도 함께 하고 있음.

○ 가을철나무심기를 과학적으로 하자(로동신문 11.11)

- 산림조성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혼성림을 잘 조성하는 것임. 산림조성은 나무들의 생태적 특성과 기후풍토조건, 인민경제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목재와 기타 원료생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진행됨. 이러한 측면에서 혼성림은 많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
- 혼성림은 단순림에 비하여 햇빛, 온도, 습도, 바람 등 기상조건도 나무들이 자라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습도가 높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성도 적음. 또한 단순림에 비하여 이로운 새들과 벌레들이 많이 번식하므로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짐.
- 혼성림조성을 잘하는 것은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됨. 조성방법에는 서로 다른 나무종류들을 줄을 엇바꾸어 심는 줄식혼성방법, 줄안에서 서로 다른 나무종류들을 엇바꾸어 심는 줄사이혼성방법, 매개 나무종류들을 몇줄씩 일정한 띠모양으로 서로 엇바꾸어 심는 띠식혼성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 나무종류와 보조나무종류 및 떨기나무종류들을 섞어 심는 형식을 취함.

○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로동신문 12.11)

- 김정일은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관리하여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함.
- 경제림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사업뿐만 아니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생산하여 전국 각지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산림연구사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어려운 과학연구사업이나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소의 일꾼들은 산림과학연구사업에 더욱 더 진력을 가하고 있음.

○ 산림정보화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로동신문 1.15)

- 산림과학정보중심은 산림정보화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기본연구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옴.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서는 산림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함. 따라서 산림과학정보중심에서는 산림정보자료기지를 만듦. 이 자료기지에는 수종이 좋은 100여가지 종류의 나무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들어있으며 매 나무들의 학명, 지리학적 분포지, 육종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또한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의 수목배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수종을 확보하고 심고 가꾸어 수목원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수목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기지화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산림조성

○ 수림화, 원림화를 목표로(로동신문 10.24)

-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봄철 나무심기를 위한 연합기업소궐기모임을 가진 후 나무심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하고 있음.
- 언제건설장의 당원들과 노동계급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자신들의 일터를 알뜰히 가꾸고 주변 산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산림을 잘 조성하고 있음. 언제건설자들은 도로를 더 넓고 시원하게 내고 길 옆에 더 많은 꽃과 나무들을 심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 연합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기업소 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와 함께 수림화, 원림화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고 있음.

○ 나무심기를 잘하려면(로동신문 11.11)

- 가을철나무심기는 봄철나무심기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은 나무의 생육활동에 영향을 줌. 가을철나무심기는 대체로 대기온도가 5℃아래로 내려가는 시기에 진행됨. 모든 나무종류들은 5-10℃이상에서 생육활동이 진행되므로 이 시기에는 잠자는 단계에 들어가 체내의 생리적 활동이 정지되고 겨울나기 준비가 완성되어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
- 가을철에 나무를 심으면 심은 나무가 이듬해 봄 생육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환경조건에 순응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사름률이 높아지게 됨. 가을철에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은 이깔나무, 창성이깔나무, 종비나무, 전나무, 황철나무, 오리나무 등 겨울나이성질이 비교적 썸 나무들임.

○ 더 많은 나무를 심자(민주조선 11.13)

- 가을철나무심기에 동참하는 것은 조국강산에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지게 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산림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는 참다운 애국사업임.
-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잘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음.
- 나무심기는 전국적범위에서 많은 군중이 동원되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게 지대별, 임지별, 수종별로 되는 나무심기계획을 바로 세워야 함.
- 나무심기가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나무심을 적지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나무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워주어야 함.

○ 올해 6만 6천여정보의 산림 조성(로동신문 11.15)

- 나라의 모든 산을 보다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 임업성 아래 각지 산림조성부문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6만 6천여 정보의 산에 많은 나무를 심었음. 이는 작년의 산림조성계획을 107.2%로 넘쳐 수행한 것임.
- 강성대국건설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임업성은 연초부터 산림개조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창성이깔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키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수행하였음.
- 성간군, 강계시, 장강군, 덕천시, 단천시, 수동구, 동창군, 경성군, 회령시, 판교군공업임경영소들에서 많은 나무모를 키워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강계시, 덕천시, 동창군, 수동구공업임경영소들은 나무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뽕나무림 조성(민주조선 11.17)

- 평안북도에서 뽕나무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나무심기를 대중운동으로 활발히 벌려 수천정보의 뽕나무림을 조성하였음.

- 구성시, 녕변군, 선천군에서는 나무모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적지를 바로 정한데 기초하여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 수백정보씩의 땔나무림을 조성함.
- 울산군, 박천군, 창성군, 대관군에서는 일꾼들이 현지에 나가 나무심기정형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우는 것과 함께 기술지도를 잘하여 사용율을 높이고 있음.
- 삭주군, 동림군, 동창군, 광산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자기 단위들에 맡겨진 땔나무림 조성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지게(민주조선 11.21)

- 허천군인민위원회에서 가을철 나무심기월간에 나무를 많이 심어 군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 있음.
- 책임일꾼들은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일꾼들과 산림경영소의 일꾼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과 함께 읍지구를 빠짐없이 돌아보며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내보내 수종이 좋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데 주목을 하고 지대별, 임지별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택해주어 이 사업이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음.
- 군적으로 벌써 짧은 기간에 수십정보의 면적에 아카시아 나무, 포플러나무, 이깔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들이 심어졌으며 다음해에 심을 구덩이파기를 전반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나무심기를 대중적으로(민주조선 11.23)

- 운산군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 봄에만도 500여 정보의 면적에 이깔나무, 잣나무, 밤나무, 평양단풍나무를 비롯한 나무를 심는데 이어 이번 가을철식수월간에도 많은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가을철나무심기 사업을 벌리고 있음
-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모든 단위들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나무심기과제를 명확히 준데 이어 위원회의 일꾼들이 해당 단위들을 맡고나가 그곳 일꾼들과 합심하여 빠른 기간에 나무심기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단위별 사회주의경쟁을 특색있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여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생산을 힘있게(민주조선 1.16)

-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평안북도임업관리국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임지들을 옮겨 선정한테 기초하여 노력과 설비들을 집중하고 있음.
- 운산, 천마림산사업소들에서는 나무베기, 사이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눈길을 이용한 통쏘이방법 등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통나무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수풍, 태천임산사업소에서는 트랙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물길에 의한 통나무나르기를 하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알려주어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음.

○ 총공격전의 불길 더욱 세차게(로동신문 1.17)

-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립업상안의 일꾼들과 각지 통나무생산자들이 산판마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총공격전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음.
-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는 통나무생산에 앞서 필요한 다이야, 쇠바줄,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 자재들과 노동보호물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에 관심을 가져 작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통나무생산소대를 200여개나 더 늘려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 일제히 들어가도록 함.
-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는 성간림산사업소, 강계림산사업소, 랑림림산사업소, 동신갱목생산사업소, 고인림산사업소, 희천갱목생산사업소들이 앞서나가고 있음.

○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민주조선 1.20)

- 각지 립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조건을 잘 이용하여 통나무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정초부터 산지통나무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동신갱목생산사업소 통나무생산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10일 현재 월계획의 50%이상을 수행하였음.
- 허천갱목생산사업소, 정평, 장진, 경원림산사업소 등에서는 실정에 맞게 설비와 운

재수단을 이용하여 노력과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계획보다 많은 산지통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 산림보호

○ 철저한 산림보호대책을(로동신문 10. 24)

-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병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소나무가지마름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생물농약, 화학약제들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송충이가 전파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송충이의 천적을 이용한 해결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통나무생산

○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민주조선 10.23)

- 자강도임업관리국에서 겨울철 생산준비에 역량을 쏟고 있음.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빨리 끝내기 위해 해당 일꾼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유, 설비부속품 등 생산용자재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지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희천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새로운 임지 조건에 맞게 산하작업소들에서 작업하여 이미 임무를 끝냈으며 랑림임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톱, 손톱, 자동차, 트랙터 등 설비와 공구준비에 관심을 갖고 있음. 이 외 성간림산사업소, 북동·림철·화평·오가산·위원·송원림산사업소 등에서도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음.

○ 동발나무생산의 연일 혁신(민주조선 11.6)

- 송원림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이 탄광에 보내줄 동발나무 생산과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열의를 가지고 동발나무 생산에 있어서 연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송관작업소에서는 산세가 험한 지형조건에 맞게 나무베기를 적극 앞세우면서 여러

가지 운반 수단을 이용하여 나무 운반을 하고 있으며 송천, 양지 작업소에서는 나무베기, 아지따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 간의 연계를 통하여 동발나무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동차 운전자들은 매일 수백리길을 운전하며 내부 예비를 찾아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이면서 한통의 나무라도 더 실어나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민주조선 11.15)

- 김정일은 “통나무 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 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겨울철에 통나무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채취공업부문과 중요 대상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목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위해서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겨울철통나무생산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조직사업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야 함. 또한 모든 노력을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하며, 예비노동력을 찾아내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함.
- 생산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 것은 겨울철 통나무생산의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임. 기계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 연유 등을 계획대로 보장해야 함.

○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다그친다(민주조선 11.25)

- 겨울철 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지휘성원들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량림임산사업소의 책임일꾼들은 겨울철통나무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솔선수범하여 통나무생산에 나서고 있음.
- 흑수작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나무베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운재방법으로 산지토장들에 통나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있음. 남소작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나무베기와 나무모으기 등 통나무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호상간연계를 강화하고 작업조를 조직하여 통나무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비생산부문의 노력을 겨울철통나무생산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자동차, 트랙터 등 기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통나무 생산을 늘리고 있음. 그리고 산지합숙을 잘 꾸려 통나무생산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 산판에 내려치는 혁신의 기상(로동신문 11.28)

- 랑림임산사업소의 일꾼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올해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겨울철산지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일꾼들이 앞장서서 겨울철산지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삼포작업소에서는 기계톱과 트랙터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매일 맡겨진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신원, 오만동작업소를 비롯한 모든 작업소들에서는 겨울철기간에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우고 노력한 결과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 실적이 높아지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로동신문 12.4)

- 121호 임업연합기업소안의 일꾼들과 통나무생산기지들이 겨울철 통나무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판을 크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연합기업소 일꾼들은 모든 임산사업소들에서 공동시설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임산사업소에서는 산판도로닦기, 임철길보수, 합숙, 휴게실, 트랙터보온고 등 준비작업을 끝마침.
- 부전임산사업소의 일꾼, 노동자들도 통나무생산전투를 벌려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음. 상창, 성과임산사업소들의 일꾼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조직하여 산에 노력과 기계화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으로 들끓는다(민주조선 12.6)

- 강원도임업관리사국 아래 임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있어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차별조건이 유리한 겨울철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있으며 임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 또한 앞장서서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보기 드문 홍수피해를 입은 세포, 회양임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유실, 매몰, 파괴된 여러개의 산지합숙들과 수십 km에 달하는 사이나르기 길을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하고 준비건설을 앞세우면서 통나무생산에 헌신의 힘을 쏟고 있음.

○ 1,800여만 그루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음(민주조선 12.8)

- 강원도안의 일꾼, 근로자들이 1,800여만 그루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음.
- 평강군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림을 100여 정보 조성할 목표 하에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아카시아나무는 빨리 자라면서도 땔나무로도 좋고 여러모로 이용가치가 큰 나무임.

○ 통나무생산을 늘린다.(민주조선 12.8)

- 겨울철통나무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보다 꼼꼼히 추진하기 시작함.
- 황초작업구에서는 통나무운반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으며 메물작업소, 중남작업소에서 또한 겨울철통나무의 생산을 늘리고 있음. 메물작업소의 노동자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 의지를 갖고 일정계획을 130% 이상 수행하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 적극 추진(로동신문 12.11)

- 량강도임업관리국산하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 통나무생산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일꾼들은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고무시키고 있음.
- 겨울철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갑산임산사업소의 신명, 송암, 추풍, 남대작업소들에서는 노력과 설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 적극 추진(민주조선 12.11)

- 양강도임업관리국산하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꾼들은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휘관들처럼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갑산임산사업소, 연암임산사업소, 유평임산사업소, 백암갯목생산사업소 등에서는 겨울철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할 일념 하에 설비의 이용률을 높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산판에 내려치는 태천의 기상(민주조선 12.16)

- 산지통나무생산이 지난해 같은시기보다 105% 증가함.
- 각지 임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통나무생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에 맞게 역량을 집중하여 일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강계임산사업소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순환식채벌에 따르는 임지들을 새로 확정한테 기초하여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삭도, 통쏘이, 소발구 등에 의한 사이나르기에 힘을 집중하여 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초과함.
- 위원, 랑림임산사업소, 동신갯목생산사업소에서도 분투하고 있으며 평안남도관리국 덕천, 신양, 덕련, 북창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연간계획을 10월에 150%수행하였음.

○ 산지통나무생산성과 확대(로동신문 12.26)

- 임업성과 각 도 임업관리국 일꾼들이 생산현장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일을 추진하여 올해 산지통나무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장성하였음.
- 강계임산사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순환식채벌에 따르는 임지를 새로 확정한테 기초하여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삭도, 통쏘이, 소발구 등에 의한 사이나르기에 힘을 넣어 올해 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초과하여 달성함.
- 위원, 랑림임산사업소, 동신갯목생산사업소에서도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임업관리국 덕천, 신양, 덕련, 북창갯목생산사업소에서도 10월에 겨울철통나무생산을 150% 수행함.
- 벽동, 대판, 세포, 판교임산사업소 등 임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연유와 자재를 절약하면서 채벌, 운반설비들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물동, 폐동 보수관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통나무 생산에서 계속 혁신(민주조선 1.5)

- 립업관리국에서는 세포, 안변림산사업소를 비롯한 산하 여러 립산사업소들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한테 기초하여 통나무 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자재, 설비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음. 또한 이곳 일꾼들은 모든 립산사업소들에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겨울철통나무생산실적을 부쩍 높이도록 생산지휘를 하고 있음.

- 지난해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훨씬 초과하여 수행한 천내, 통천립산사업소들에서 또한 지난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판교립산사업소와 세포립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이미 베어놓은 통나무를 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생산성과 확대(민주조선 1.10)

- 함경북도립업관리국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1.3배로 높이 세우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경성립산사업소에서는 이번 겨울철기간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의 70%를 해낼 목표 밑에 모든 역량을 산판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 수백m에 달하는 삭도를 놓아 베어낸 나무를 제때에 실어내고 있음.
- 연사립산사업소와 마양립산사업소들에 나간 국의 일꾼들도 이번 겨울철기간에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단위 일꾼들과 함께 통나무생산의 앞장에서 이신작착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

8. 기타 작물

- 종자혁명을 통한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량종과일나무를 늘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수농장들에서 키 작은 사과나무 심기 운동이 실시됨. 북청군과 덕성군에 새로운 버섯공장이 조성되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황해남도에서는 목화따기가 한창이며 따들인 목화의 보관을 위하여 보관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과수

○ 과일과수전문학교에서(로동신문10.16)

- 김일성은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산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강의와 과학실험, 생산실습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말함.
- 과수학강좌 교원들은 여러 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수학 실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계학강좌 교원들도 각종 농기계를 갖춘 실습장을 만들고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과수부문과학기술발표회(민주조선 11.16)

- 11월 14, 15일 전국과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어 과수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일꾼들이 참가함.
- 발표회에서는 과수재배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과일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150여건의 성과자료와 경험들이 소개되었음.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와 강동, 증산과수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내놓은 밀식재배를 할 수 있는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에 관한 연구, 새 품종 과일의 형태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 참가자들은 과일나무발토양 환경개선과 지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밀식한 어린 과일나무의 가지자르기를 비롯하여 과수원관리에서 이룩한 연구성과와 경험

들을 발표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민주조선 11.23)

- 김정일은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 황해북도과수연합회사에서는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하여 생산자대중의 높아진 열의에 맞게 우량종과일나무를 늘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회사에서는 과일생산을 맞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량품종 과일나무대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새품종의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있던 나무들에 가지접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과일생산을 늘리고 있음. 또한, 과일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음.
- 황주군에서는 선진적인 나무모생산기술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과일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은파군에서도 심어놓은 과일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키 작은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다(로동신문 12.8)

- 올해에 과수연합총회사 아래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키 작은 사과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운동이 힘차게 벌어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올해 키 작은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그 면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 이상 늘어남.
- 금봉, 신성, 신청, 홍상과수묘목농장을 비롯한 과수묘목농장들에서는 키 작은 사과나무를 위주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묘목들을 생산하여 각지 과수농장에 보냄.
- 고산과수농장에서는 작년에 수십만 그루의 과일나무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여러 과수농장에 보내주면서 260여 정보의 면적에 키 작은 사과나무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많은 면적에 키 작은 사과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둠.

□ 버섯

○ 전국버섯재배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 진행(로동신문 10.26)

- 전국버섯재배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4,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어 지난 기간 버섯연구와 재배에서 성과를 거둔 과학자, 기술자, 재배공들이 참가함.

- 참가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100여 건의 성과와 경험을 발표함.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우량품종의 버섯 육성, 종균과 기질의 품질지표의 규격화, 버섯재배의 합리적인 조직기술자료들을 비롯하여 버섯기르기를 전문화, 표준화, 집약화하는데 기여할 연구자료들이 관심을 받음.
- 여러가지 버섯제품들과 종균, 지방의 조건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배양기질들, 버섯재배 및 포장에 필요한 수십종의 기구, 장치, 용기 등이 출품됨. 최근에 연구한 여름에도 기를 수 있는 털검정버섯, 목장폐설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새로운 배양기질주입기, 종균접종기 등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음.

○ 버섯생산기지들이 성과를 내도록(민주조선 10.26)

- 과일군에서 버섯기르기를 대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군인민위원회에서는 군 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버섯생산기지들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버섯기르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버섯기르기와 관련한 방법을 알리고 경험토론회를 개최하여 다른 조직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갱도식으로 된 버섯재배장을 잘 꾸리고 종균배양과 온습도조절, 공기갈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버섯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음.

○ 버섯기르기를 잘한다(민주조선 11.8)

- 은파군 광명협동농장에 버섯공장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버섯이 생산되어 많은 양의 버섯을 생산해내고 있음.
- 버섯 재배공들은 기질과 종균생산을 앞세워 버섯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버섯재배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버섯생산량을 늘리고 있음. 또한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의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반마다에도 버섯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하고 있음.

○ 버섯공장을 새로 건설(민주조선 11.28)

- 북청군에서 많은 양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큰 버섯공장이 새로 생김으로써 군 내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군인민위원회 일꾼들, 공장일꾼들,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녀달이라는 짧은 시일 내에 기본생산건물과 함께 멸균실, 무균실, 종균실, 발효실이 있는 여러동의 부속건물이 갖춰진 버섯공장이 꾸려짐.
- 또한 해마다 많은 양의 질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와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공장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새로 세운 버섯공장의 첫 수확이 좋다(민주조선 12.31)

- 덕성군에 많은 양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큰 버섯공장이 새로 세워져 군내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버섯공장에는 버섯재배장, 멸균실, 무균실, 종균실, 발효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며 위원회와 공장에서는 버섯재배실의 온도를 보장하는 사업과 버섯재배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음.

□ 나물

○ 실리있는 나물절임방법(민주조선 11.13)

- 새로운 나물절임방법은 종전처럼 소금이나 장, 쌀겨와 같은 절임제 대신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임. 절임에 쓰는 미생물은 젖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산들과 비타민, 생리활성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은 균들로 이루어져 있음.
- 한 예로, 1t의 겨울나물을 절임하려면 50ℓ의 물에 강냉이 가루 0.5kg 정도를 넣고 복합균 30g과 절임할 나물량의 3-5% 정도 되게 소금을 넣으면 됨. 이때 절임하려는 나물이 충분히 물에 잠기도록 탱크에 물을 부어넣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것이 좋음.

□ 목화

○ 목화따기 한창(민주조선 10.18)

-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서 목화따기가 한창임. 목화따기를 제철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천, 연안, 삼천군이 이에 앞장서고 있음. 삼천군 고현, 봉천군 주담, 강령군 인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따들인 목화의 보관을 위하여 보관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목화를 따는 기쁨(로동신문 11.18)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큰길옆 목화밭에서는 농장원들의 목화따기가 한창임.

9. 기타 보도 동향

- 농촌에 더 많은 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하여 농자재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이를 통해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고 있으며 비료생산 또한 늘리고 있음. 최근 의주식료공장이 종합적인식료가공기지로 현대화되었으며, 평안남도, 강원도 등지에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농촌문화주택이 건설되었음.

□ 농자재

○ 농촌에 더 많은 부속품을(민주조선 10.24)

- 원산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꾼, 노동자, 기술자들이 증산투쟁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결성하여 자체적인 힘으로 생산량 증가에 힘써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트랙터부속품을 보내주고 있음.
-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주물공정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합금강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강재를 생산하는 등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고 합리화안을 만들어 낸이 나게 하고 있음.
- 주물작업반, 단조작업반의 노동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질 좋은 주물소재들과 단조품들을 일정계획대로 생산해내고 있음.
- 장비종합작업반과 공무종합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의 노동자들도 올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위하여 가을걷이와 난알털기에 한창인 농촌에 더 많은 트랙터 부품을 보내주기 위해 힘차게 일하고 있음.

○ 자체로 성능높은 농기계들을(민주조선 11.25)

- 은률군농기계작업소의 일꾼, 노동자들이 앞선 기술을 부단히 받아들여 성능 높은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작업소에서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관련되 있음.

- 작업소의 일꾼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를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소의 기술역량을 옹게 발휘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쓰고 있음.
-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작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하여 농기계수리와 부속품을 계획량을 초과하여 생산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도 많이 만들어내어 작년보다 많은 기름을 절약하면서도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속 혁신(로동신문 12.13)

-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8월 새로운 비료생산공정을 조업한 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비료생산을 훨씬 늘렸음.
-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일꾼들은 비료생산공정들에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해 전투조직을 조직하여 지휘하고 있음.
- 보수분사업소와 화학기계분공장에서는 대형펌프를 연합기업소의 생산조건에 맞게 개조, 설치하여 대형물여과기 10여대를 더 제작설치하여 급수직장의 생산능률을 훨씬 끌어올렸음. 이로인해 물이 보장됨.
- 공업기술연구소에서는 물응집제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축매연구소에는 새로운 축매를 연구도입하여 생산 향상에 기여함.
- 합성직장과 보수분사업소에서는 증기발생기의 부식을 막기 위한 공정을 새로 꾸렸으며, 청정직장과 합성직장에서는 대형압축기를 예비로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질소직장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를 한대 더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합기업소에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생산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 농기계들을 실정에 맞게 개조(로동신문 1.21)

- 김책시 동흥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에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새롭게 받아들인 영농재배방법에 따라 자체로 농기계들을 개

조하여 이용한 경험을 살려 올해에는 그것들을 질적으로 더욱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농장원들에게 농기계개조가 가지는 중요성을 선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발동하여 농기계들을 농장의 실정에 맞게 더욱 완성되도록 조건 보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종합식량가공기지

○ 현대화된 종합식료가공기지(민주조선 11.20)

- 최근 의주식료공장이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모든 생산공정들은 물론 생산 건물들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 공장을 자랑할만한 종합적인 식료가공 기지로 꾸려놓았음.
- 특히 좋은 점은 군에서 생산되는 콩과 고구마, 감자 등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린 것임.
- 기초식품직장의 모든 생산공정은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새로 제작설치한 원판회전식제공기는 공기조화기와 여파기를 통하여 곡실안의 온습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음. 곡자공정의 아래층에는 발효탱크들이 있으며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정이 밀폐되어 제품의 위생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

□ 농민정양소

○ 호평받는 농민정양소(민주조선 11.24)

- 신양군 장산협동농장에 방, 세면장, 목욕탕, 문화오락실이 다 갖춰진 농민정양소가 있음. 이곳에서는 농업생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혁신자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정양생활을 하고 있음.
- 이 정양소가 찬사를 받는 농민정양소가 되기까지 농장일꾼들은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동의 우리에 집짐승들도 넣고 정양생들에게 색다른 음식을 보장했으며, 농민들의 정양을 조직하기도 하였음.

□ 살림집

○ 50개의 농촌마을 건설(로동신문 12.14)

- 김정일은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평안남도에 50개의 농촌마을이 건설되어 1,247세대의 살림집과 117동의 공공건물이 새로 건설되고 271세대의 살림집과 43동의 공공건물이 개건보수됨.
- 살림집건설에서는 은산군, 대흥군, 온천군, 룡강군, 평원군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이밖에도 강서군, 숙천군, 개천시, 성천군을 비롯하여 도안의 여러 시, 군들에서도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새집들이경사가 났다(민주조선 12.16)

- 일꾼들의 노력과 열의 하에 건설이 시작된지 닷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강동군 읍지구에 수십동의 훌륭한 농촌문화주택들이 새로 세워짐.
- 산뜻하게 둘러친 울타리, 농민들이 살기 편리하게 꾸려진 살림방들과 주방, 집짐승 우리와 창고 뿐만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여러 동의 공공건물들도 함께 세워져 농장원들의 물질 문화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음.

○ 1,400여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민주조선 12.29)

- 강원도안의 시, 군들에 1,400여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이 새로 건설됨.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들과 부엌, 전실과 세면장, 창고와 집짐승우리, 메탄가스탱크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살림집 건설에서는 원산시, 안변군, 통천군, 고산군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안변군에서는 구체적 설계를 하고 앞서 건설함.

○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선 농촌마을들(로동신문 12.30)

-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370여개의 농촌마을들에 1만 3천여세대의 살림집과 960여동의 공공건물이 세워짐. 또한 1,900여세대의 살림집과 460여동의 공공건물들이 개건보수됨.
- 살림집 건설 투쟁은 안악군 대추리와 오국리, 연안군 정촌리와 오현리를 비롯한 도

안의 모든 군들에서 벌어지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새로 건설한 농촌살림집들에 전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강계시와 초산군, 장안군을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전기난방화된 살림집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살림집설계와 시공조직을 조직함.
- 이러한 노력은 함경북도, 양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농촌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농업 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7,207만 달러로 전년 동월 31,296만 달러에 비해 45% 감소하였음(전월 15,340만 달러 대비 12.1% 증가)
- 반입은 6,48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699만 달러에 비해 13.8% 증가하였음.(전월 5,958만 달러 대비 8.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2.8%, 농림수산물 24.7%, 광산물 16.2%, 철강·금속제품 23.7%, 전기전자제품 4.8% 등임.
- 반출은 10,72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5,597만 달러에 비해 58.1% 감소하였음(전월 9,381만 달러 대비 14.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21.8%, 농림수산물 16.3%, 섬유류 18.3%, 기계류 11.7%, 전기·전자제품 10.2%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628만 달러로 전월 1,353만 달러 대비 24.3% 증가하고 9월 전체 반입액 6,486만 달러의 24.7%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송이버섯 등 농산물이 1,12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7.3%), 기타 목재생활용품 등 임산물이 2,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003%),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50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8%)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923만 달러로 전월 2,960만 달러 대비 35%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마늘 등 농산물이 1,9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7.7%), 분유 등 축산물이 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21,237만 달러로 전년 동월 8,083만 달러에 비해 162.7% 증가하였음(전월 17,207만 달러 대비 23.4% 증가)
- 반입은 8,28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060만 달러에 비해 63.6% 증가하였음.(전월 6,486만 달러 대비 27.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4.1%, 농림수산물 41.0%, 광산물 15.6%, 철강·금속제품 22.5%, 전기전자제품 5.1% 등임.
- 반출은 12,95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023만 달러에 비해 328.6% 증가하였음(전월 10,720만 달러 대비 20.8% 증가)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20.4%, 농림수산물 14.6%, 섬유류 19.3%, 기계류 12.2%, 전기·전자제품 10.3%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558만 달러로 전월 1,628만 달러 대비 4.3% 감소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8,281만 달러의 41.0%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송이버섯 등 농산물이 76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3%), 기타 축산물부산물 등 축산물이 5,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03%), 건축용 목제품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6%),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78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690만 달러로 전월 1,923만 달러 대비 64%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마늘 등 농산물이 63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9%), 돼지 등 축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4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4,000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9,731만 달러로 전년 동월 9,450만 달러에 비해 108.8% 증가하였음(전월 21,237만 달러 대비 7.1% 감소)
- 반입은 8,26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030만 달러에 비해 64.4% 증가하였음.(전월 8,281만 달러 대비 0.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3%, 농림수산물 22.8%, 광산물 12.1%, 철강·금속제품 19.7%, 전기전자제품 3.8% 등임.
- 반출은 11,46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420만 달러에 비해 159.3% 증가하였음(전월 12,956만 달러 대비 11.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22.4%, 농림수산물 6.0%, 섬유류 30.4%, 기계류 12.6%, 전기·전자제품 9.1%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882만 달러로 전월 1,558만 달러 대비 20.7% 증가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8,269만 달러의 22.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535달러(전체 반입액의 6.5%), 합판 등 임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38달러(전체 반입액의 16.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693만 달러로 전월 690만 달러 대비 0.4%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감자 등 농산물이 59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5.2%), 기타 가축 등 축산물이 2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6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표 1 2007년 9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824,495	11,202	17.3	농산물	43,643,853	19,011	17.7
녹두	100,000	99		쌀	41,057,820	14,308	
강낭콩	20,520	11		보리	2,800	3	
들깨	20,000	26		밀	500	1	
호박	120	0		감자	66,967	112	
마늘	557,060	1,292		밀가루	580,148	457	
기타채소	61,283	125		땅콩	1,199	4	
고사리	132,103	874		사과	50	0	
송이버섯	219,088	8,111		배	5	0	
기타버섯류	31,082	193		바나나	831	2	
기타견과류	21,000	11		오렌지	4,701	26	
기타식물성유지	510	4		포도	35	0	
원장	37,002	24		수박	1,985	10	
기타소스류	2	0		마늘	637,040	1,230	
제조담배	600	6		기타채소	14,679	47	
식물성한약재	194,910	339		국화	20	0	
소주	4,320	5		기타산식물	11,860	9	
기타주류	1,675	8		대두유	344,000	385	
물	407,280	61		기타식물성유지	77,830	147	
면류	15,940	11		사료	89,240	37	
				기타소스류	9,260	217	
				커피조제품	267,900	588	
				초코렛	846	27	
				제조담배	11,455	164	
				맥주	4,638	4	
				포도주	120	2	
				위스키	1,498	110	
				기타주류	622	2	
				기타당류	4,656	34	
				물	100	0	
				음료베이스	88,108	20	
				과일주스	4,597	39	
				기타음료	598	2	
				사탕	238	2	
				비스킷	15,484	89	
				곡류가공품	347	1	
				빵	44,068	81	
				면류	92,662	212	
				기타농산가공품	204,556	628	
				종자류	220	9	
				면	165	4	
축산물	-	-	-	축산물	8,976	59	0.1
				쇠고기	6	0	
				돼지고기	370	1	
				닭고기	714	2	
				소시지	1,771	3	
				분유	2,300	19	
				기타낙농품	2,561	11	
				모류	1,254	23	
임산물	650	2	0.003	임산물	28,559	92	0.1
기타목재생활용품	650	2		합판	1,560	4	
				단판	270	3	
				섬유판	11,395	38	
				건축용목제품	500	30	
				목제장식품상자	24	5	
				기타목재류	5,400	5	
				수목류	9,410	7	
수산물	1,350,582	5,085	7.8	수산물	5,141	72	0.1
새우	107,360	985		기타어류	400	64	
기타게	41,808	238		오징어	3	0	
문어	42,636	165		기타조개	2,270	2	
피조개	2,780	8		기타수산가공품	2,468	5	
기타조개	391,407	679					
기타연체동물	220,558	478					
건조수산물	41,725	351					
기타수산가공품	467,585	1,814					
기타수산물	34,723	367					
합 계		16,289	25.1	합 계		19,234	17.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5호(2007.9.1~9.30).

표 2 2007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537,820	7,696	9.3	농산물	3,399,325	6,330	4.9
기타곡실류	6,780	32		쌀	88,276	161	
호박	426,990	120		감자	101,981	208	
마늘	748,840	1,737		밀가루	107,713	35	
기타채소	233,515	469		사과	869	18	
고사리	187,283	1,148		배	15	0	
죽순	6,293	10		감	822	1	
송이버섯	78,864	2,144		바나나	44,436	93	
표고버섯	39,463	274		오렌지	9,904	69	
기타버섯류	71,651	406		포도	60	0	
밤	52,920	48		상추	25	0	
간장	4,048	3		호박	166,400	33	
원장	5,990	4		마늘	931,285	1,798	
제조담배	450	5		기타채소	28,264	59	
식물성한약재	373,339	1,235		기타화초	9,460	30	
소주	5,184	6		기타산식물	92,060	59	
기타주류	5,810	3		대두유	293,160	330	
물	256,400	32		사료	142,640	66	
면류	15,000	11		간장	2,133	5	
기타농산가공품	19,000	9		겨자	11,147	25	
				마요네스	1,345	4	
				기타소스류	751	4	
				커피조제품	204,550	335	
				초코렛	1,857	33	
				코코아조제품	632	4	
				녹차	357,714	153	
				제조담배	14,932	229	
				인삼류	944	69	
				식물성한약재	19,320	28	
				소주	3,140	6	
				맥주	8,858	7	
				위스키	5,873	176	
				기타주류	2,286	42	
				기타당류	12,000	8	
				물	37,440	7	
				과일주스	110,356	129	
				기타음료	698	3	
				사탕	415	22	
				비스킷	31,787	118	
				곡류가공품	168	1	
				빵	51,503	100	
				면류	275,592	1,197	
				기타농산가공품	225,914	664	
				면	600	2	
축산물	45	5	-	축산물	26,809	121	0.1
기타 축산물부산물	45	5		돼지	11,900	63	
				쇠고기	26	0	
				돼지고기	2,795	23	
				닭고기	660	3	
				기타동물뼈	21	2	
				소시지	8,656	21	
				로얄제리	54	5	
				기타낙농품	2,697	5	
임산물	23,000	17	0.1	임산물	277,802	454	0.4
건축용목제품	22,000	10		제재목	100	0	
수목류	1,000	7		합판	20,654	102	
				단판	10	0	
				삼유판	51,910	73	
				건축용목제품	5,210	13	
				목재틀	20	0	
				기타목재생활용품	43	0	
				기타목재류	17,850	11	
				수목류	182,005	253	
수산물	2,764,507	7,872	13.1	수산물	202	4	
기타어류	1,000	13		오징어	13	0	
새우	114,323	1,068		기타해조류	34	0	
기타계	154,980	1,251		수산부산물	155	3	
문어	97,764	407					
피조개	8,960	23					
기타조개	1,459,895	2,055					
기타연체동물	341,592	457					
새우젓	120	1					
기타열장수산물	42,500	51					
건조수산물	80,400	648					
기타수산가공품	399,463	1,328					
기타수산물	63,510	571					
합 계		15,590	18.8	합 계		6,909	5.3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6호(2007.10.1~10.31).

표 3 2007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859,787	5,359	6.5	농산물	2,781,517	5,973	5.2
완두	1,922	6		쌀	16,668	26	
기타곡싹류	7,220	34		보리	2,136	6	
무	6,700	9		감자	97,377	211	
호박	90,200	30		쌀가루	240	1	
마늘	812,360	1,885		밀가루	493,304	371	
기타채소	202,020	379		사과	83	0	
고사리	40,770	253		매	25	0	
옥수수	4,596	5		감	85,000	146	
양지버섯	7,640	43		바나나	312	5	
표고버섯	164,503	1,252		오렌지	27,677	86	
기타버섯류	57,353	417		감귤	15	0	
밤	38,000	35		무	3,020	95	
제조담배	710	7		호박	111,734	22	
식물성환약제	184,726	943		양파	90	2	
기타주류	7	0		마늘	1,007,923	1,946	
물	226,060	49		기타채소	17,050	31	
면류	15,000	12		단초	40	0	
				기타화초	15,007	31	
				고사리	3,500	20	
				표고버섯	9,995	87	
				밤	17,000	14	
				기타산식물	229,690	215	
				대두유	20,000	16	
				사료	84,140	36	
				간장	6,887	16	
				고추장	75,720	230	
				겨자	2,383	6	
				기타소스류	670	3	
				커피조제품	72,639	392	
				초코렛	1,596	46	
				녹차	7,464	19	
				제조담배	11,065	178	
				인삼류	287	14	
				소주	4,220	8	
				맥주	6,315	5	
				포도주	31	1	
				위스키	3,798	134	
				기타주류	1,445	4	
				물	236	0	
				인삼음료	894	4	
				과일주스	5,727	40	
				기타음료	233	1	
				사탕	2,185	293	
				비스킷	4,324	35	
				곡류가공품	257	1	
				빵	62,920	137	
				면류	110,147	565	
				기타농산가공품	155,451	460	
				견	597	14	
축산물	-	-	-	축산물	51,791	244	0.2
	-	-		돼지	450	17	
				기타가축	31,500	150	
				쇠고기	24	0	
				돼지고기	940	3	
				닭고기	2,882	5	
				소시지	4,266	9	
				분유	7,500	51	
				기타낙농품	4,229	8	
임산물	12,100	76	0.1	임산물	283,318	651	0.6
합판	1,100	56		원목	3,500	101	
삼유판	11,000	20		합판	90,706	257	
				삼유판	24,733	44	
				건축용목제품	124,457	208	
				목재장식용상자	17	0	
				기타목재생활용품	9	0	
				기타목재류	8,516	6	
				수목류	26,380	33	
				종자류	5,000	1	
수산물	7,807,110	13,389	16.2	수산물	13,511	63	0.1
넙치	4,559	27		기타어류	13	0	
기타어류	23,004	35		오징어	5	0	
새우	210,500	1,190		김	132	5	
꽃게	293	1		기타해조류	322	21	
기타게	137,022	1,223		기타수산가공품	13,039	36	
문어	70,385	293					
굴	1,995	10					
피조개	96,021	251					
기타조개	5,927,261	6,991					
기타연체동물	830,505	1,212					
기타연장수산물	50,000	102					
건조수산물	47,760	321					
기타수산가공품	386,305	1,467					
기타수산물	21,500	266					
합 계		18,824	22.8	합 계		6,931	6.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7호(2007.11.1~11.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소 계	63,313	2,797	3,473,404	63,432	5,599	3,924,251	7,397,655	450,848
2007.1	1,759 (953)	169 (152)	55,581 (26,741)	1,848 (1,162)	340 (296)	37,168 (36,364)	92,749 (63,105)	△18,431 (9,623)
2007.2	1,533 (871)	170 (165)	44,431 (28,419)	1,586 (1,191)	339 (309)	37,797 (38,068)	82,228 (66,487)	△6,634 (9,649)
2007.3	1,939 (1,253)	166 (176)	58,636 (41,335)	1,823 (1,425)	399 (345)	44,515 (89,671)	103,151 (131,006)	△14,121 (48,336)
2007.4	1,803 (1,083)	180 (164)	46,029 (30,388)	1,891 (1,132)	431 (294)	86,840 (36,564)	132,869 (66,952)	40,811 (6,176)
2007.5	2,222 (1,080)	187 (164)	63,397 (36,780)	2,115 (1,280)	443 (325)	88,531 (64,299)	151,929 (101,079)	25,134 (27,519)
2007.6	2,010 (1,167)	180 (183)	57,385 (35,594)	2,094 (1,505)	409 (336)	97,858 (93,858)	155,243 (129,452)	40,473 (58,264)
2007.7	2,060 (1,289)	192 (154)	78,414 (63,925)	2,254 (1,509)	426 (312)	105,150 (45,833)	183,564 (109,758)	26,736 (△18,092)
2007.8	1,982 (1,540)	195 (170)	59,582 (54,745)	2,445 (1,536)	449 (346)	93,817 (52,944)	153,399 (107,689)	34,235 (△1,801)
2007.9	2,013 (1,772)	198 (184)	64,868 (56,989)	2,161 (1,789)	403 (338)	107,206 (255,971)	172,074 (312,961)	42,338 (198,982)
2007.10	2,464 (1,581)	203 (178)	82,810 (50,605)	2,798 (1,246)	485 (300)	129,568 (30,230)	212,378 (80,835)	46,758 (△20,375)
2007.11	2,657 (2,021)	220 (172)	82,693 (50,306)	3,009 (1,673)	496 (344)	114,619 (44,204)	197,312 (94,509)	31,926 (△6,102)
소계	22,442 (14,610)	432 (404)	693,826 (475,825)	24,024 (15,448)	784 (683)	943,069 (788,006)	1,636,895 (1,263,831)	249,225 (312,181)
총 계	85,755	3,229	4,167,230	87,456	6,383	4,867,320	9,034,549	700,073

주: 1) ()안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7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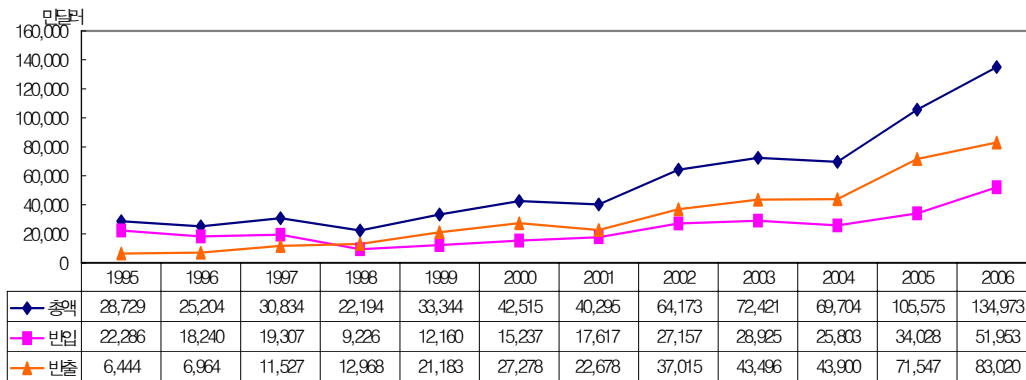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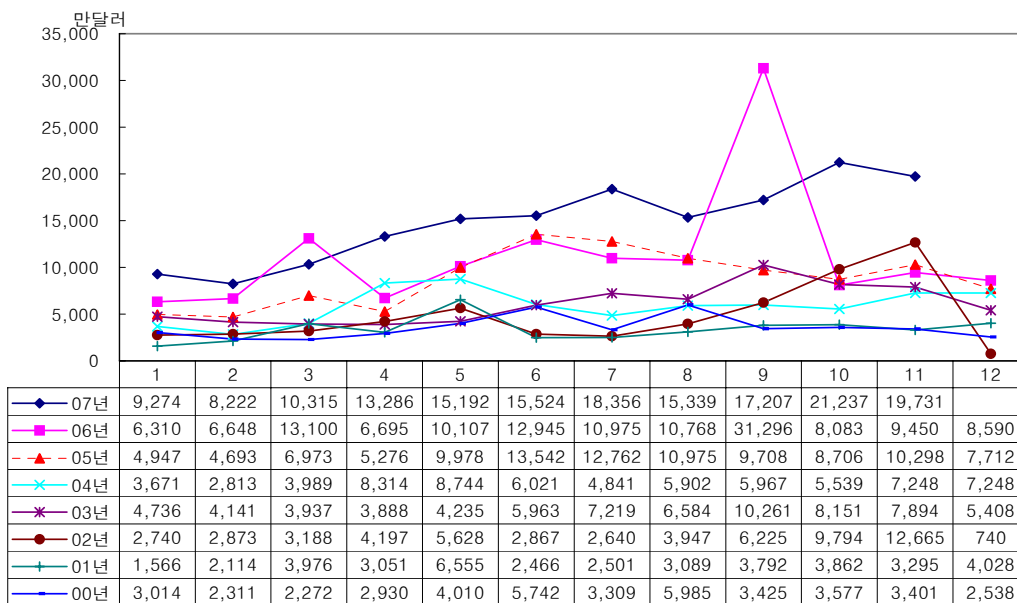


표 5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소 계	310,830	3,238	50,160	553,288	917,517	677,754	20,455	16,106	13,688	728,003	1,645,520	△189,514
2007.1	2,996 (2,323)	- (36)	26 (73)	13,345 (7,845)	16,367 (10,277)	3,002 (833)	32 (107)	41 (183)	27 (161)	3,102 (1,284)	19,469 (11,561)	△13,265 (△8,993)
2007.2	- (1,550)	- (71)	- (41)	- (5,049)	- (6,711)	- (1,078)	- (645)	- (227)	- (31)	- (1,981)	- (8,692)	- (△4,730)
2007.3	2,069 (2,191)	- (14)	5 (53)	9,666 (9,539)	11,740 (11,797)	3,111 (1,080)	291 (198)	774 (248)	143 (33)	4,319 (1,559)	16,059 (13,356)	△7,421 (△10,238)
2007.4	3,386 (2,521)	- (4)	18 (47)	6,250 (4,694)	9,654 (7,266)	2,316 (1,164)	70 (7)	487 (372)	219 (27)	3,092 (1,570)	12,746 (8,8362)	△6,562 (△5,696)
2007.5	4,229 (2,023)	- (-)	- (23)	13,317 (8,504)	17,546 (10,550)	3,405 (1,522)	162 (9)	941 (252)	281 (108)	4,789 (1,891)	22,335 (12,441)	△12,757 (△8,659)
2007.6	4,826 (3,046)	33 (9)	- (17)	11,322 (10,233)	16,181 (13,305)	25,530 (13,477)	16 (195)	160 (295)	161 (56)	25,867 (2,023)	42,048 (15,328)	9,686 (△11,282)
2007.7	5,636 (3,807)	- (29)	7 (9)	13,606 (6,562)	19,249 (10,407)	21,652 (1,146)	23 (22)	169 (536)	223 (60)	22,067 (1,764)	41,316 (12,171)	2,818 (△8,643)
2007.8	5,689 (3,225)	26 (18)	- (14)	7,818 (7,879)	13,533 (11,136)	29,259 (2,234)	152 (202)	159 (409)	30 (13)	29,600 (2,858)	43,133 (13,995)	16,067 (△8,277)
2007.9	11,202 (3,704)	- (-)	2 (21)	5,085 (8,919)	16,289 (12,644)	19,011 (188,954)	59 (118)	92 (312)	72 (114)	19,234 (189,498)	35,523 (202,142)	2,945 (176,854)
2007.10	7,696 (2,912)	5 (30)	17 (31)	7,872 (6,653)	15,590 (9,621)	6,330 (1,242)	121 (35)	454 (712)	4 (27)	6,909 (2,016)	22,499 (11,637)	△8,681 (△7,605)
2007.11	5,359 (5,467)	- (1)	76 (41)	13,389 (11,344)	18,824 (16,821)	5,973 (3,438)	244 (178)	651 (523)	63 (103)	6,931 (4,242)	25,755 (21,063)	△11,893 (△12,579)
소 계	53,088 (18,705)	64 (664)	151 (242)	101,670 (48,100)	154,973 (67,711)	119,589 (60,412)	1,170 (1,564)	3,928 (1,940)	1,223 (733)	125,910 (64,649)	280,883 (132,360)	△29,063 (△768)
총 계	-	-	-	-	1,072,490	-	-	-	-	853,913	1,926,403	△218,577

주: 1) ()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5~197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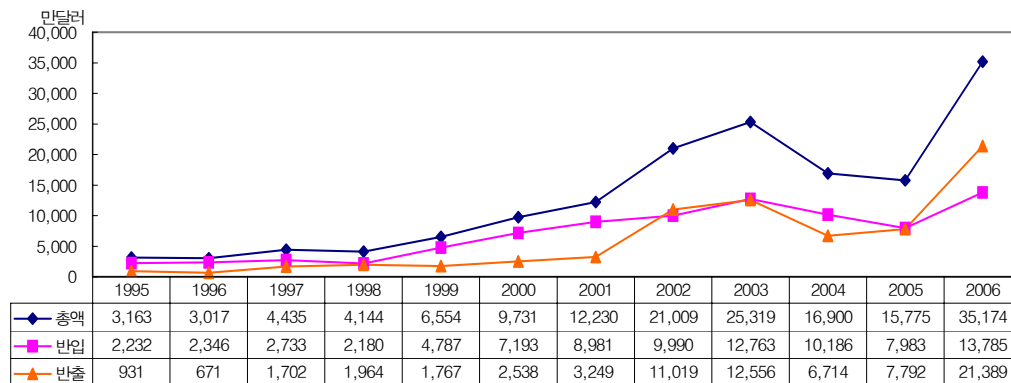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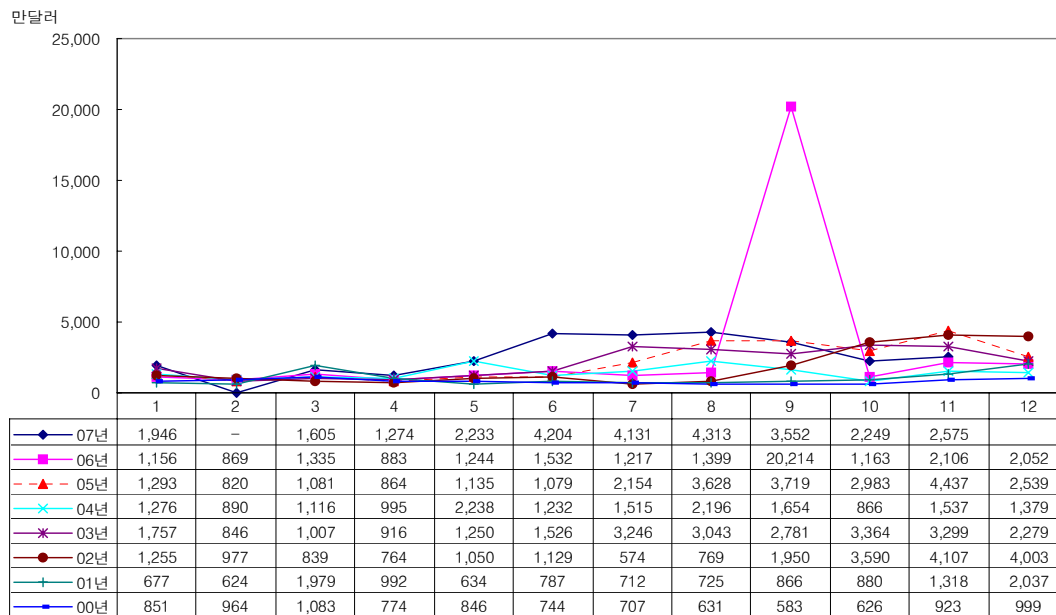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7년 9~11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11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6개로 전체 430개 기업(단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402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4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7년 11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제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육수수개발 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육)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원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분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7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제1차 남북총리회담 개최 (통일부, 2007. 11. 16)

- 남북한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11.14-16일 간 서울에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8조 4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함.

《 합의사항 》

1.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및 통일지향적 발전조치 추진
2. 서해지역 평화와 공동이익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3.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추진
 -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3) 개성공단 건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4. 사회문화분야 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 추진
5. 민족의 화해와 단합 도모를 위한 인도주의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6. 자연재해 발생시 상호 통보, 피해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 적극 협력
7. 총리회담 반기 1회 개최, 2008년 상반기 제2차 회담 평양 개최

- 아울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2개 합의서도 함께 채택하였음.
- 경협공동위에 관한 합의서는 과거의 경협 관련 회담체계와 각종 합의서에 대한 처리를 정리하고 있음.
 -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경협공동위」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6개 분과위를 설치
 - 이 합의서에 의하면 농업부문 협력을 「남북농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

도로 해 개점휴업 상태이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대체하였음.

- 기존의 농업협력 합의사항은 농수산분과위 체제 하에서 계속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음.

-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를 중심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되 종자 생산 및 가공 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2007년 중 착수하고,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협력도 추진한다고 명시함.

제1차 남북총리회담합의서의 경험 및 농업협력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경 제 협 력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착수 -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도로 및 철도 협력분과위 구성 • 조선협력단지 건설 -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 - 남포의 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조선·해운협력분과위 구성 • 개성공단 관련 - 1단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 - 1단계에 필요한 근로자 적기 보장과 숙소 건설 협력 -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 협의 추진 -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 통행절차 개선,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 착공, 물자하차장 건설 - 보건, 의료부문의 협력과 지원 추진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농수산 협 력	• 협력대상지 현지조사, 2008년 상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의 확정 •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 구체적으로 이행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착수) • 산림녹화,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협력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자료: 통일부,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 11.

□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중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2007. 11. 17)

가. 개정사유

- 남북관계 및 국내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승인대상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승인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필요
-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출서류 양식도 반출입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대한 규정 보완 및 타 부처 고시명 반영
 - 제한사항에 ‘금지’ 포함,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명칭 수정
-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반출·반입승인 신청·절차’, ‘교역보고’ 구체적 명시 및 반입승인 절차 세분화
-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과 상이한 물품명은 관련법규의 물품명과 명칭 일치
 - 꽃게 등 14개 품목의 물품명 변경
-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별표 품목에서 제외
 - 제3국 경유 위탁가공 섬유류는 개별승인 대상에서 제외
 - 산동물 및 육과 식용설육은 관련법령에 제한이 있는 품목으로 별표에서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추가지정
 - 위장반입 가능성이 제기된 단호박은 개별승인품목으로 지정
- 기타 별지 서식을 보완

□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통일부, 2007. 11. 6)

- 남북 양측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농업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 주요 합의 내용

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감.
 - 빠른 시일 내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
 -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
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함.
 -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
 - 북측은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방문, 기술지원,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함.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국회 보고 및 공개

(통일부, 2007. 11. 27)

-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에 관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2008~2012년 기간을 대상으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해 말 국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하였음.
 - 이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 목표,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 전략목표, 과제,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음.

- 이 계획은 농림업부문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협동농장 협력, 농업기술교류협력, 산림복구분야 협력 등 2005년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주요 내용을 계승하되 경협사업 추진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협력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야도 추가적으로 포함
 - 남북 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도 중요한 만큼 국내의 법제도와 남북 당국 간 협의채널도 확충할 것을 명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상의 농업협력

구 분	주요 내용
농 업 협 력	• 협동농장 협력: 남북 농업협력 거점으로 개발 • 농업부문 기술협력 및 시설지원: 전문인력과 기술을 교류하고, 연구시설, 종자정선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지원 • 농산물 협업체계 구축: 수입대체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반입 추진 • 농업생산기반 정비: 수해·산림·황폐지 복구 협력 추진
산 림 협 력	• 산림자원 생산 확대: 양묘장 조성, 산림복구 추진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공동조사와 종합방제계획 수립 • 황폐지복구와 홍수관리: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체제 수립 • 연료림 조성 지원: 생활연료 지원을 위해 연료림을 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07.

□ 2007 대 북 식량차관 쌀 40만 톤 전달 완료 (통일부, 2007. 12. 5)

- 정부는 12.5(수) 37항차 출항(부산-청진)을 마지막으로 쌀 40만 톤 전달을 완료하였음.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4.22)에 따라 6.30(군산→남포) 첫 출항한 이래로, 약 5개월에 걸쳐 육로(국내산 쌀 5만 톤, 7.20~8.24) 및 해로(국내산·외국산 쌀 35만 톤, 6.30~12.5)로 수송을 완료
 - 지원기간 중 정부 관계자·민간 전문가 등 총 293명이 식량차관의 인도에 참여(매 항차당 3~5명)
- 아울러 올해 식량차관 제공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4차례의 분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 총 20곳의 식량공급소(매 방문시 동해안 3곳, 서해안 2곳)를 방문하였음.
 - 분배현장 방문 : 1차 개성·고성(10.16), 2차 해주(10.30)·함흥(10.27), 3차 원산(11.16)·남포(11.19), 4차 남포(11.28)·청진(12.8)

□ 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2007. 12. 6)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2007. 12. 6일 ‘제주도 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1) 제주도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제주산 농산물(감귤) 8,000톤의 수송비 총 19억7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2) 영상편지 시범교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남측 영상편지 제작비용, 북측 제작 장비·물품 지원 등
- 제9차 적십자회담(11.28~30)에서 기상봉자 20가족의 영상편지 시범교환과 분기마다 30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

3) 대북 옥수수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북측의 수해피해 및 동절기 식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옥수수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80억 원을 지원기로 결정함.
- * 북한의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총 33만 정보로 주곡인 쌀과 옥수수 등 금년도 30~40만 톤 식량 감산 예상(FAO는 20~30만 톤 감산 추정)
-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기간중 북측의 요청 등을 감안, 식량사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북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옥수수 5만 톤을 12월 말부터 지원할 계획
- * 실행에 옮겨지지 않음.

4)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 체결 승인

- 개성공단 입주업체 서한섬유 등 2개 기업이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신청에 대하여, 이 신청이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관련 규정이 정한 약정체결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2개 기업 약정체결 신청금액 총 84억 원을 승인하기로 의결

5)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6자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에너지 설비·자재 우선 1차분 및 중유보일러를 남북

협력기금 45억 원 범위 내에서 긴급 제공기로 결정

6) 문산-봉동 간 남북 화물열차 개통 행사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 공동으로 12월 11일 판문역에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4억 8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7) 남북철도연결구간 마무리공사용 자재장비 차관제공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0-21)에서 문산-봉동 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마무리 공사용 자재장비 제공에 합의함에 따라 일부 긴급 자재장비 제공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51억 7천 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8)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현지조사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현지조사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억 7백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 * 서해공동어로구역, 해주경제특구·해주항 건설,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5개 사업의 현지조사에 해당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통일부, 2007. 12. 6)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 12. 4~6일 간 서울에서 개최

-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큰 틀에서의 남북공동번영 문제를 논의하고 10개 조로 구성된 합의서 채택

○ 제1차 경협공동위 합의서에서는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세부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음

- 종자 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협력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검역 및 방역부문의 협력,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에 착수하기로 함.
- 수산분야에서는 북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들 농수산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농수산협력분과위를 개최하기로 함.

《 주요 합의사항 》

1.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 '08.2.12~13 「도로협력분과위」 및 '08.1.22~23 「철도협력분과위」 개최(개성)
2.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
 - 2차 현지조사를 12.11부터 진행
 -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 협의
 - 12.25~28 「조선 및 해운분과위」 개최(부산), 조선협력 및 해주직항로 문제 협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 12.17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 12.20~21 「개성공단분과위」 개최(개성)
4.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 자원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지하자원개발 분과위」 구성, '08.1월 중 제1차 회의 개최
 - 12.20~26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 진행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종자 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관련 현지조사 실시
 -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 2008년 내에 착수.
 - 북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 우선 추진
 - 12.14~15 「농수산협력분과위」 개최(개성)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 합의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 추진
 -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08년부터 추진
 - 12.20~21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 개최(개성)
7.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경협제도분과위」 구성 및 '08.4월초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문제, 등의 문제 협의
8.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협의
9. 남북경협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통일부, 2007. 12. 17)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음.
- 종자 및 유전자원분야 협력,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동해 북측어장 입어 및 어로 등 농수산분야에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총 6개조 8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 주요 합의내용

- 1)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조속 추진
 - 현지조사 : 12. 21 ~ 25, 규모 20명,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조사
 - 북측은 기초자료 및 편의보장, 남측은 설비·물자 제공
 -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종자, 유전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2008. 3월 중 개성에서 기술협의 개최
- 2)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 협력 추진
 - 정보 교환, 중요 검역소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가축 예방·진단·치료약품 등 협력
 - 2008.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3) 과수·채소·잠업·축산,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 4) 수산분야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2008년 중 북측 동해어장의 일정수역에서 남측어선 입어 및 어로 진행
 - 수산물 생산,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 추진(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 조사 실시)
 -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
 -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08년초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5) 농수산물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 동서해지구 통행,통신,통관의 군사보장을 위한 합의

(통일부, 2007. 12. 17)

-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음

《 주요 합의내용 》

- ① 매일 07:00~22:00까지 상시적 통행을 보장
 -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 ②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 통신을 허용
 -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 ③ 선별검사 방식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 세관검사장 신설·확장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통일부, 2007. 12. 3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 △과제 △추진방향 △세부 사업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6개 조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

《 주요 합의내용 》

- ①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
 - 20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및 해주지역 현지조사 2008.1.31경 실시('08.1월 중 관련 실무접촉 개최)
- ② 해주항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 개발·활용
 - 2008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및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 ③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 20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④ 한강하구 단계적 개발·이용
 - 2008년 상반기 안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⑤ 2008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08년 북한산 농림수산물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

(통일부, 2008. 1. 21, 통일부 공고 2008-3호)

- 통일부장관은 2008년 1월 21일 북한산 농림수산물 중 연간 반입 한도 운영품목과 배정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

2008년 북한산 농림수산물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

단위 : 톤

품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반입제한	비 고
꽃게	400	20	7.1-8.31	
붉은대게	700	50		암컷 및 치게 반입제한
새우 및 보리새우 (염장, 염수장)	600	50		
가리비(냉동)	400	40	11-3월	국내양식 출하시기
오징어(냉동·신선)	400	20		
낙지(냉동)	200	20		
건명태(북어류)	2,000	20		3월초 일괄 배정 공고
들깨	1,000	20		2월초 일괄 배정 공고
당면	2,000	200		
땅콩조제품	1,200	100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
고추제품류 (고추장 등)	300	50		기설비를 반출한 업체에 한함
참깨분	400	50		
매주	300	50		
호두	300	10		10월초 일괄 배정 공고
표고버섯	800	25		2, 9월중순 일괄 배정 공고
호박	500	40		8월말 일괄 배정 공고

주 : 개인한도 물량은 신청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일괄 배정 품목은 별도 공고 예정

국영무역품목 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

단위 : 톤

품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비 고
녹두	1,000	200	
팥	1,000	200	
대두	2,000	300	콩나물콩 포함
참깨	300	100	

- 주 1) 인도조건 :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
 2) 승인여부 : 매건별로 한도물량 범위내에서 품위,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
 3) 반입승인 신청시 계약서에 북한내 생산지(시·군단위) 명기
 4) 반입 승인 후 70%미만 이행 업체는 향후 반입승인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농정 구상

- 2008년 2월에 출범할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 공약인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집약되어 있음.
-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선다면 대규모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지원에 착수
- 이를 통해 북한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시키고 성장시켜 10년 후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신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중점 분야

분 야	목표 및 주요내용
경 제	•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 법률, 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 파견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KOTRA 등 한국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재 정	•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 World Bank 및 ADB 국제금융차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 FDI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 지원
인프라	• 기간 운송망 및 기간 통신망 확충 - 기간 통신망 연결 - 항만, 철도, 도로 정비 및 건설 - 한반도 대운하 연계
교 육	• 30만 산업인력 양성 -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관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환경복지	•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 및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의료진, 병원설비 등 보건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 지원

자료: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197-198쪽

- 한편 신정부는 선거기간 중 통일농정 공약도 발표하였음.
- 북한농업의 자생력 회복과 북한지역 녹화 및 치산치수 사업 지원

-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 조성
- 북한 농업의 자생력 회복과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본 공약은 지원 및 협력의 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재원 마련 등 통일농정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평가됨.

<자료>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조 (화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① 매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 ② 6.15 8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당국과 민간이 참가 ③ 국회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 활성화 적극 지원
제2조 (평화 협력)	서해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① '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② 해주경제특구·해주항 개발 : 금년중 실무접촉·현지조사, '08년 사업계획 확정 ③ '08년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④ 해주직항로: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통해 협의 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구성, 12월중 1차 회의(개성)
제3조 (경협)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금년중 현지조사 ② 11.20~21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③ 11.28~29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도로협력분과위」와 「철도협력분과위」 구성 <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08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 ② 남포지역에 영남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③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제문제 지속 협의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구성, 12월 1차회의 개최 < 개성공단 건설 > ①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 '0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②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조 항	주 요 내 용
제3조 (경협)	③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내 0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내 인터넷·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① '08년 상반기안 단천지구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12월중 제3차 현지조사 ② 금년중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 착수 ③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전염병통제, 한의학발전에 협력 ④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협력 ⑤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환경오염 방지 협력 ⑥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지하자원 개발·농업·보건의료·수산·환경보호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12.4~6제1차 회의 개최(서울)
제4조 (사회 문화)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 ①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구성 ② 백두산·개성관광 적극협력, 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③ 12월중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경의선 열차 이용) 실무접촉 실시 ④ '08년 상반기중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2월중 기상협력 실무접촉 실시
제5조 (인도)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① 12.7 금강산면회소 준공식, '08년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② 11.28~30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제6조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적극 지원
제7조	총리회담 6개월에 1회 개최, 제2차 남북총리회담 (2008상반기, 평양)
제8조	수정 및 발효

<자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

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 및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 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자료>

남북농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 등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자료>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요지)

1. 남북관계 발전 기본방향

- 향후 5년간 정책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화해협력 제도화로 설정
- 대북정책의 3대 원칙과 6대 추진방향을 제시
 -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와 호혜 △남북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추진방향 : △한반도 비핵화 달성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도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

2.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성실 이행
 - 2008년부터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 진입 추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경제협력과 평화정착의 선순환적 발전 도모
 -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실질적 평화보장조치 마련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확대·발전
 - 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 조선 등 중점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
 - 개성공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등 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단계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강화 및 북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
-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 역사 공동복원, 체육교류, 국회·정당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확대·다양화
- 취약계층·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통한 사회문화공동체 기반 형성 노력
- 통일지향적 평화교육 실시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 이산가족 상시상봉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
 - 재난 남북공동대응 및 효과적인 대북 인도지원 방안 모색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분야별 회담 체계화
 - 서울-평양 경협(상주)대표부 설치
 -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대북 투자 정보의 체계적 제공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
 -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및 국회에 대한 보고 활성화
 -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자료>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수출 현황(2007. 12월 말 현재)

1. 입주기업 생산 현황 (단위 : USD 1,000)

구 분	'05	'06	'07	누계
금액	14,906	73,737	185,332	273,975

2. 입주기업 수출 현황 (단위 : USD 1,000)

구 분	'05	'06	'07	누계
금액	866	19,826	40,106	60,797

3. 북측 근로자 현황

구분	'06.12		'07.12	
	남측	북측	남측	북측
근로자수	791	11,160	856	22,538

4. 북측근로자 1인당 생산액 (단위 : USD)

구 분	'05 월평균	'06 월평균	'07 월평균
금액	638	1,000	1,258

남북회담 현황

1. 남북회담 개최 현황(2000 -2007.12.31)

구 분	정 치	군 사	경 제	인도·사회문화	계
2000년	6	4	3	2	15
2001년	2	2	3	1	8
2002년	4	9	14	5	32
2003년	5	6	17	8	36
2004년	2	5	13	3	23
2005년	10	3	11	10	34
2006년	5	4	8	6	23
2007년	13	11	22	9	55
합 계	47	44	91	44	226

2. 남북합의서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2.31	계
합의서 건수	13	1	36	18	4	23	31	21	23	10	39	219

<자료>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교역대상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을 말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반출·반입함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과 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포괄적으로 승인한 물품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

제4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단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

다.), 업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단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②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6.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 ②제1항의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반출·반입승인 신청 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승인
 -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 라.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2. 반출승인
 -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입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나. 반출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3. 반출입승인
 - 가. 반출·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매확약서(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를 첨부)
 - 나.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 다.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4. 변경승인

가.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나. 변경 계약서 또는 물품매매 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변경에 한함)

제8조(반출·반입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출·반입 및 반출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은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첨부서류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역보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승인 물품을 반출입 한 자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완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교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교역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신고필증

2. 기타 관련서류(필요시에 한함)

부 칙 <2005·10·31 >

이 고시는 2005.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 12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4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7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0	유장분말
24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25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6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7	0409-00-0000	천연꿀
28	0410-00-3000	로얄제리
29	0507-90-1110	녹용전지
30	0507-90-1190	녹용기타
31	0507-90-1200	녹각
32	0701-10-0000	감자(종자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3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4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5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6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7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38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39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0	0710-80-2000	마늘(냉동)
41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2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3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4	0712-20-0000	양파(건조)
45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6	0712-90-1000	마늘(건조)
47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48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49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0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1	0714-20-1000	고구마(신선)
52	0714-20-2000	고구마(건조)
53	0714-20-3000	고구마(냉장)
54	0714-20-9000	고구마(신선 · 건조 · 냉동 고구마 이외)
55	0714-90-9090	서류(기타)
56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57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58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 건조)
59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 · 건조)
60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 건조)
61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 · 건조)
62	0810-90-3000	대추(신선)
63	0811-90-1000	냉동밤
64	0811-90-2000	냉동대추
65	0811-90-3000	냉동잣
66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7	0813-40-2000	대추(건조)
68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69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0	0910-10-0000	생강
71	1003-00-9010	겉보리
72	1003-00-9020	쌀보리
73	1003-00-9090	보리(맥주맥 · 겉보리 · 쌀보리 이외)
74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75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76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77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 · 사료용 · 팝콘용 이외)
78	1006-10-0000	벼
79	1006-20-1000	메현미
80	1006-20-2000	찰현미
81	1006-30-1000	맷쌀
82	1006-30-2000	참쌀
83	1006-40-0000	쇄미
84	1007-00-1000	수수(종자용)
85	1008-10-0000	메밀
86	1008-90-0000	곡물류(메밀 · 조 · 카나리시드 등 이외)
87	1102-90-1000	보리가루
88	1102-90-2000	쌀가루
89	1102-90-9000	곡분(쌀 · 호밀 · 옥수수 · 밀 · 메슬린 · 보리가루 이외)
90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1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2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3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4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95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96	1103-20-1000	밀(펠리트)
97	1103-20-2000	쌀(펠리트)
98	1103-20-3000	보리(펠리트)
99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명
100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1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2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3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 · 플레이크)
104	1104-29-2000	보리(압착 · 플레이크 이외)
105	1104-22-0000	귀리(압착 · 플레이크 이외)
106	1104-23-0000	옥수수(압착 · 플레이크 이외)
107	1104-29-1000	율무(압착 · 플레이크 이외)
108	1104-29-9000	곡물(압착 · 플레이크 이외)
109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0	1105-20-0000	감자(압착 · 플레이크 및 펠리트)
111	1108-11-0000	밀 전분
112	1108-12-1000	옥수수 전분(식품용)
113	1108-12-9000	옥수수 전분(기타)
114	1108-13-0000	감자 전분
115	1108-14-1000	매니옥 전분(식품용)
116	1108-14-9000	매니옥 전분(기타)
117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18	1108-19-9000	전분(밀 · 옥수수 · 감자 · 매니옥 · 고구마 이외)
119	1108-20-0000	이눌린
120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1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22	1201-00-9090	대두(기타)
123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4	1202-20-0000	낙화생(탈각)
125	1207-40-0000	참깨
126	1207-99-1000	들깨
127	1211-20-1100	수삼
128	1211-20-1210	백삼(본삼)
129	1211-20-1220	백삼(미삼)
130	1211-20-1240	백삼(잡삼)
131	1211-20-1310	홍삼(본삼)
132	1211-20-1320	홍삼(미삼)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33	1211-20-1330	홍삼(잡삼)
134	1211-20-2110	인삼분(백삼)
135	1211-20-2210	홍삼분
136	1211-20-2220	홍삼 타브렛 · 캡슐
137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 타브렛 · 캡슐 이외)
138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39	1211-20-9200	인삼종자
140	1211-20-9900	인삼(인삼근 · 분말 · 잎 · 줄기 · 종자 이외)
141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벼짚에 한함)
142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3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44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45	1302-19-1210	홍삼엑스
146	1302-19-1220	홍삼엑스분
147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48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49	1702-11-1000	유당
150	1702-19-1000	기타 유당
151	1702-90-1000	인조꿀
152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3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4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55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56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 · 보리가루의 것 이외)
157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58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59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 · 보리가루의 것 이외)
160	1902-19-2000	당면
161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2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3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64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65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66	2103-90-1030	고추장
167	2103-90-9030	혼합조미료
168	2103-90-9040	매주
169	2103-90-9090	혼합조미, 조제품 기타
170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1	2106-90-3021	홍삼차
172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3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4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75	3505-10-3000	배소전분
176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77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178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79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0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81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2	3505-20-1000	전분 글루
183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84	3505-20-9000	기타 글루
185	5004-00-0000	견사
186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87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7.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노르웨이 377, 아일랜드 304,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뉴질랜드 106, 룩셈부르크 81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³⁾	-	9,966	-	한국 2,437,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총 계	-	167,761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1, 2008)

표 2 2007년도 지원창구별 지원 실적 (2007.1.1~12.31)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양자지원(정부)	수해 지원	러시아	514,250
	수해 지원	한국	7,862,680
	보건의료 관리 지원	이탈리아	516,224
	밀 2,560톤 지원	이탈리아	1,351,351
	복구 프로그램 관리 지원	이탈리아	154,867
		소계	10,399,372
CONCERN	수해 지원	아일랜드	141,689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827,883
		소계	969,572
유진벨재단	보건 지원	미국	1,000,000
		소계	1,000,000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단 1	유엔긴급구호지원	스웨덴	151,858
	수해 지원	ECHO	572,207
		소계	724,065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단 2	수해지원(물 및 위생)	ECHO	170,213
			소계 170,213
FAO	유엔긴급지원자금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600,000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700,000
		소계	1,300,000
GAA	식량안보 개발지원	독일	1,142,473
	수해 지원(비식품)	독일	205,198
		소계	1,347,671
독일적십자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109,439
	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695,364
		소계	804,803
Global Resource Services	보건지원	미국	999,987
		소계	999,987
Handicap International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551,922
		소계	551,922
국제적십자연맹	수송	독일적십자사	19,867
	인도적 지원	일본적십자사	258,750
	인도적 지원	덴마크적십자사	50,838
	수해 지원	싱가폴적십자사	35,077
	DREF 교체	네덜란드적십자사	54,647
	수해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208,333
	수해 지원	뉴질랜드	381,679
	수해 지원(수인성 전염병 예방)	ECHO	136,240
	15 IEHK	독일	136,289
	수해 지원	싱가폴	35,077
	보건, 물 및 위생	핀란드	666,667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요청	캐나다	233,645
	인도적 지원	영국적십자사	60,500
		소계	2,277,609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북한적십자사	인도적 지원	네덜란드	716,312
		소계	716,312
국제의료지원프로그램	수해지원(의약품)	국제의료지원 프로그램	750,000
		소계	750,000
Mercy Corps	보건 지원 수해 지원(의약품) 수해 지원 수해 지원(의약품, 의류)	미국 개인 및 기관 미국 개별 기구	1,000,000 12,500,000 50,000 830,000
		소계	14,380,000
노르웨이 적십자사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요청 지원	노르웨이	2,184,874
		소계	2,184,874
개인 및 개별기구	수해 지원	개인 및 개별기구	5,227,021
		소계	5,227,021
Psykisk Helsevern Norum	정신병프로젝트	노르웨이	60,504
		소계	60,504
호주적십자사	재난관리, 물 및 위생 지원	호주	403,877
		소계	403,877
Samaritan's Purse	수해 지원	미국 미국	1,000,019 50,000
		소계	50,000
Save the Children	식량안보 및 보건 부문 지원 함경남도 기초 건강관리	스웨덴 영국	827,883 304,260
		소계	1,132,143
스웨덴적십자사	백신접종 지원 보건 및 의료 지원 수해 지원(보건의료 및 물)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70,561 290,469 576,360
		소계	937,390
스위스개발협력처 (SDC)	수해 지원	스위스	5,738
		소계	5,738
Triangle	식량안보 및 보건 부문 지원	스웨덴	413,942
		소계	413,942
유엔기구 및 NGOs	기초 의약품 물 염소소독 지원	ECHO ECHO	341,997 136,799
		소계	478,796
UNICEF (유엔아동기금)	모자보건 모자보건 프로그램 물 및 위생 프로그램 어린이 영양, 학용품, 물, 위생 2006-2007 인도적 지원 유엔긴급인도지원 긴급영양지원 보건 및 영양 추가 지원 모자보건 긴급지원 영양 및 보건 서비스 지원 등 홍역예방접종 지원	이탈리아 ECHO 호주 호주 스웨덴 스웨덴 독일UNICEF 독일UNICEF 유엔긴급지원자금 한국 유엔긴급지원자금	384,616 1,945,530 1,239,675 614,753 1,000,020 607,435 723,610 340,600 1,700,000 3,150,000 3,100,000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UNICEF (유엔아동기금)	긴급영양지원	한국	500,000
	보건, 물 및 위생사업	캐나다	235,850
	물 및 위생사업	한국	50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500,000
	수해 지원	UNICEF홍콩	100,000
	긴급지원	UNICEF한국	200,000
		소계	16,842,089
UNPF (유엔인구기금)	출산보건서비스 긴급지원	노르웨이	18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300,000
	출산 및 신생아 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300,000
		소계	780,000
WFP (세계식량계획)	취약계층 구호지원	노르웨이	559,701
	WFP 대북 활동지원	터키	100,000
	식량지원	아일랜드	337,838
	취약계층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2,298,577
	식량지원	호주	1,211,632
	수해 긴급지원	영국	1,006,036
	식량지원	ECHO	681,199
	식량지원(밀 1,976톤)	독일	2,770,270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604,167
	취약계층 지원	룩셈부르크	341,530
	식량지원	캐나다	471,698
	수해 긴급지원	영국	1,010,67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800,000
	수해 긴급지원	핀란드	410,39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1,747,541
	식량지원	룩셈부르크	100,221
	식량지원	핀란드	737,463
	식량지원	캐나다	1,047,120
	수해 지원	호주	1,574,803
		소계	17,810,862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WHO (유엔보건기구)	홍역예방접종	한국	1,050,000
	보건 및 기초의약품 긴급지원	호주	395,733
	강원도 보건 및 의료지원	이탈리아	1,231,190
	홍역예방접종	이탈리아	133,333
	여성 및 어린이 보건 지원	한국	10,270,000
	말라리아 예방	한국	36,566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800,000
	기초의약품 및 보건지원	호주	409,836
	수해 지역 보건지원	한국	1,000,000
	현금 및 현물지원	노르웨이	364,298
	긴급지원	폴란드	47,880
		소계	15,738,836
월드비전	평양 인근 수해지원	개인 및 개별기구	200,000
		소계	200,000
합 계			99,657,617

주: 전체 지원액 중 8월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양자 지원은 46,770,730달러, 유엔의 긴급구호 지원 호소에 의한 다자지원은 14,683,266달러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1, 2008)

표 3 2007년도 분야별 지원 실적 (2007.1.1~12.31)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농 업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FAO	700,000
		유엔긴급지원자금	FAO	600,000
				소계 1,300,000
조정/ 지원	수송	독일	국제적십자연맹	19,867
	DREF 교체	네덜란드	국제적십자연맹	54,647
	보건의료 관리 지원	이탈리아	국제적십자연맹	516,224
	구호지원 관리	이탈리아	국제적십자연맹	154,867
				소계 745,605
식 량	식량지원	캐나다	WFP	471,698
	수해긴급지원	영국	WFP	1,006,036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FP	800,000
	수해긴급지원	핀란드	WFP	410,396
	식량지원	유럽연합	WFP	681,199
	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100,221
	수해지원	호주	WFP	1,574,803
	WFP 대북 활동 지원	터키	WFP	100,000
	식량지원	아일랜드	WFP	337,838
	취약계층 구호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FP	2,298,57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WFP	1,747,541
	식량지원	호주	WFP	1,211,632
	식량지원- RRO 10488	독일	WFP	2,770,270
	수해긴급지원	영국	WFP	1,010,670
	취약계층지원	룩셈부르크	WFP	341,530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WFP	604,167
	식량지원	핀란드	WFP	737,463
	취약계층 구호-RRO 10488	노르웨이	WFP	559,701
	밀 2,560톤 현물 지원	이탈리아	이탈리아	1,351,351
	식량지원	캐나다	WFP	1,047,120
				소계 19,162,213
보 건	영양개선 긴급지원	한국	UNICEF	500,000
	모자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유엔인구기금	300,000
	홍역예방	한국	WHO	1,050,000
	현금 및 현물 지원	노르웨이	WHO	364,298
	모자보건 프로그램 지원	유럽연합	UNICEF	1,945,530
	강원도 보건 및 의료지원	이탈리아	WHO	1,231,190
	함경남도 기초보건 지원	영국	영국 SC	304,260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보 건	보건 및 기초의약품 지원	호주	WHO	395,733
	모자보건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1,700,000
	말라리아 방제	한국	WHO	36,566
	수해 지역 기초의약품 지원	유럽연합	유엔 및 NGOs	341,997
	수해지역 의약품 현물지원	민간단체	Mercy Corps	12,50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HO	800,000
	기초의약품 지원	호주	WHO	409,836
	2006-07 인도적 지원	스웨덴	UNICEF	1,000,020
	수해지역 기초보건서비스	한국	WHO	1,000,000
	정신병프로젝트	노르웨이	Psykick	60,504
	모자보건	이탈리아	UNICEF	384,616
	긴급영양지원	독일UNICEF	UNICEF	723,61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3,100,000
	수해지역 보건키트 수송	스위스	SDC	5,738
	수해지역 보건키트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109,439
	인도적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290,469
	수해지역 긴급의료지원	유럽연합	유럽연합	572,207
	백신예방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70,561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500,000
	홍역백신 지원	이탈리아	WHO	133,333
	모자보건 증진	한국	WHO	10,270,000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695,364
	출산보건 지원	노르웨이	유엔인구기금	18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유엔인구기금	300,000
	보건 및 영양 추가지원	독일 UNICEF	UNICEF	340,600
	보건지원	미국	Mercy Corps	1,000,000
	보건지원	미국	유질벨재단	1,000,000
	보건지원	미국	GRS	999,987
	긴급지원	폴란드	WHO	47,880
		미국		1,000,019
				소계 45,663,757
다부분	수해지역 보건의료, 물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576,360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CONCERN	827,883
	의약품 및 의류지원	개인	Mercy Corps	830,000
	수해긴급지원	아일랜드	CONCERN	141,689
	질병관리, 물 및 위생	호주UNICEF	호주적십자	403,877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Handicap Int'l	551,922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Triangle	413,942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다부문	인도적 지원	영국	국제적십자연맹	60,500
	인도적 지원	덴마크	국제적십자연맹	50,838
	수해 지원	싱가폴적십자	국제적십자연맹	35,077
	수해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국제적십자연맹	208,333
	북한적십자사 지원	월드비전	월드비전코리아	200,000
	수해지역 식품 및 구호키트	국제의료지원단	국제의료지원단	750,000
	수해지역 의약품 등 지원	개인	개인 및 단체	5,227,021
	국제적십자연맹 지원	노르웨이	노르웨이적십자	2,184,874
	수해지역 긴급 현물지원	한국	양지지원	7,862,680
	영양, 보건서비스 등	한국	UNICEF	3,150,000
	식량안보 등 개발지원	독일	GAA	1,142,473
	식품 등 현물지원	러시아	양자지원	514,250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영국 SC	827,883
	긴급지원	독일	국제적십자연맹	136,289
	수해지역 긴급지원	싱가폴	국제적십자연맹	35,077
	보건, 물 및 위생 지원	핀란드	국제적십자연맹	666,667
			소계	26,797,635
미분류	국제적십자연맹 지원	캐나다	국제적십자연맹	233,645
	긴급수해지원	UNICEF홍콩	UNICEF	100,000
	보건, 물 및 위생 지원	캐나다	UNICEF	235,850
	긴급지원	UNICEF한국	UNICEF	200,000
	수해지원	뉴질랜드	국제적십자연맹	381,679
	인도적 지원	일본 적십자	국제적십자연맹	258,750
	어린이 영양, 학용품, 위생	호주	UNICEF	614,753
	유엔 긴급지원호소	스웨덴	UNICEF	607,435
	인도적 지원	네덜란드	북한 적십자	716,312
	유엔 긴급지원호소	스웨덴	EU 지원단1	151,858
			소계	3,500,282
주거 및 비식품	수해물자지원	미국	Mercy Corps	50,000
	수해물자지원	독일	GAA	205,198
	수해물자지원	미국	Samaritans's	50,000
			소계	305,198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식수와 위생	식수와 위생프로그램	호주	UNICEF	1,239,675
	식수 소독 긴급지원	유럽연합	유엔 및 NGOs	136,799
	수해지역 물 및 위생지원	유럽연합	EU 지원단 2	170,213
	수해지역 수인성 질병예방	유럽연합	국제적십자연맹	136,240
	물 및 위생지원	한국	UNICEF	500,000
			소계	2,182,927
합 계				99,657,617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1, 2008)

표 4 2007년도 원조국별 지원 실적 (2007.1.1~10.31)

지원국	지원액(달러)
유엔긴급지원자금(CERF)	11,098,577
한 국	24,369,246
호 주	5,850,309
스 웨 덴	5,318,333
독 일	5,059,033
유럽집행위원회(ECHO)	3,984,185
노르웨이	3,349,377
스 위 스	2,357,446
영 국	2,320,966
이탈리아	3,771,581
핀 란 드	1,814,526
캐 나 다	1,988,313
러 시 아	514,250
아일랜드	479,527
룩셈부르크	441,751
뉴질랜드	381,679
네덜란드	716,312
터 키	100,000
미 국	4,100,006
싱 가 폴	35,077
폴 란 드	47,880
개인 및 단체	21,559,243
합 계	99,657,617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1, 2008)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WFP, 북 식량 추가지원 요청

-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세계식량계획의 긴급 식량지원 사업이 지난주 3개월 만에 마무리됐으나 북한 당국은 WFP에 추가지원을 요청했다고 WFP가 밝힘.
- WFP 아시아 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5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북한 내 37개 군 주민 21만5천명에게 두 차례 걸쳐 10만톤 가량의 곡물을 전달했다고 밝힘.
- 그러나 북한 당국이 추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08년 1월 이들 수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리즐리 대변인은 덧붙임.
- 리즐리 대변인은 WFP평양사무소가 그 동안 2차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37개군 대부분의 식량배급소에는 WFP가 지원한 식량밖에 비축돼 있지 않다고 밝힘.
- 특히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북한 당국이 자체 수입하던 식량물량 역시 최근 많이 줄었기 때문에 WFP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식량상황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북 식량 추가지원 요청,” 2007. 12. 5)

□ 유엔 대북 수해모금 약 1천300만 달러

- 북한 당국이 지난여름 수해 상황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현장조사를 허용한 덕분에 유엔의 대북지원 긴급구호 모금 실적이 12월 10일 현재 목표액 1천 400만 달러의 88%에 해당하는 1천271만4천여달러에 이른다고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밝힘.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러한 모금 실적 비율은 유엔이 올해 긴급구호용 모

금을 한 대상국 15개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임.

- 대북 긴급구호용 모금 중 식량부문은 99%로 목표액을 거의 달성했고, 농업부문 75%, 식수와 위생부문 68%, 건강부문 67%를 기록했으나 교육부문은 전혀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과 별도로 대북 지원용 모금을 한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기부의사를 밝힌 535만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90%가 실제 기부했다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엔 대북 수해모금 약 1천300만달러,” 2008. 12. 12)

□ 북, WFP의 식량분배 투명성강화 요구에 난색

- 세계식량계획은 금년 5월 종료되는 대북 식량지원사업을 연장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지원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나 북한 당국은 식량분배 투명성 감시를 위한 감시요원의 증원과 감시지역의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북한이 현재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받고 있는 식량지원을 연장해서 받으려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협의를 이미 마쳤어야 함.
 - 그러나 북한과 세계식량계획의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세계식량계획이 대북 구호복구사업을 연장하는 제안서를 아직 이사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의 투명성 강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인도적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도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폴 리슬리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본부의 고위대표단이 1월 중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평양 방문 자체가 성사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함.
 -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식량계획 이사회는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1억 2백만 달러 규모의 대북한 구호복구 사업 제안서를 승인함.
 - 당시 이사회 정기 회의에 제출된 이 제안서는 2008년 5월까지 2년 동안 북한 내 취약층 주민들에게 1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자료: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8/01/07/wfp_food_program/(RFA, WFP 협상지연, 북한주민들에게 고통 가중, 2008. 1. 7)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남북한, 양돈 협력사업 추진키로 합의

- 통일부의 관계자는 지난 11월 5일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한 농업협력위원회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은 향후 2년 간 양돈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전함.
- 평양 근처에 양돈장을 건설하고 남한은 북한에 양돈장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와 모돈을 제공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남한의 양돈 기술자가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기술지도와 훈련을 담당하게 됨.

자료: <http://www.relief.int> (Korean Information Service, Two Koreas agree on pilot pig farming project aimed at fueling agriculture cooperation, Nov. 6, 2007)

□ 러시아, 향후 3년 동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원조 확대

- 세계식량계획은 러시아가 향후 3년 동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전 세계에 4,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함.
- 러시아는 2008년 세계식량계획에 1,100만 유로를 원조할 계획이며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500만 유로씩 원조할 예정임.
-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에 3년 간 4,100만 유로를 원조하는 것 외 북한에 300만 유로의 다자간 긴급구호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int> (WFP, Russia to boost donations to WFP over next three years, Nov. 7, 2007)

□ 호주, 6자회담 진전 시 대북 지원 재개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2002년 말부터 호주의 대북 개발지원 중단되었으나 극심한 식량부족 상황에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는 계속되고 있음.
- 호주는 2002년 이후 유엔과 국제인도적기구를 통해 3천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

원하였으며 지원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하였음.

- 호주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경우 양자 지원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재개할 뜻이 있음을 북한에 전달함.

자료: <http://www.relief.int> (AusAID, North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ov. 8, 2007)

□ 독일, 북한을 포함하여 총 10개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385만 유로를 원조

- 세계식량계획은 독일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 10여 개 국에 제공한 385만 유로의 원조를 환영함.
- 독일 정부가 제공한 원조는 독일 연방의 경제협력 및 개발부를 통해 세계식량계획에 전달되었으며 2007년 동안 독일은 세계식량계획에 총 4,390만 유로를 지원함.
- 이번 원조 중 북한의 취약계층 190만 명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25만 유로임.

자료: <http://www.relief.int> (WFP, Germany donates €3.85 million to help hungry people in 10 countries, Nov. 28, 2007)

□ 유럽국가들, 대북 식량지원 재개

- 독일 정부가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25만 유로를 기부하는 등 세계 주요 기부국들이 다시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세계식량계획이 밝힘.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WFP 베를린사무소의 랄프 조도프 대변인은 독일이 기부한 25만유로는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근 해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나라였지만 현재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독일의 적극적인 식량 지원에 대해 미국이 뒤따라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함.
- WFP는 노르웨이가 51만3천 달러, 러시아는 300만 달러를 대북 식량지원금으로 기탁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대북지원에 잇따라 참여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대북지원 목표액 1억 223만 달러의 50%에 이르는 5천95만4천 달러가 모금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는 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적은 양의 식량이라도 북한에 지원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뒤이어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당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면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방북해 북한과 직접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한 것은 원조에 대한 명백한 신호라고 말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럽국가들 대북 식량지원 재개,” 2007. 12. 1)

□ EU, 대북 식량지원 착수

- 유럽연합이 대북 식량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선양의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EU측이 중개인을 통해 선양의 한 식량회사와 대북 지원용으로 보낼 밀가루 4천t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에서 물량이 확보되는대로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힘.
 - EU가 북한에 지원할 밀가루 4천t은 중국 시세로 환산할 경우 896만 위안(약 11억2천 만 원)에 상당하는 분량임.
- 한편 WFP 랄프 쥐드호프 대변인은 지난 1일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이 대북지원에 잇따라 참여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대북지원 목표액 1억 223만 달러의 50%에 이르는 5천 95만4천 달러(11월 27일 현재)가 모금됐으며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EU 대북식량지원 착수 … 중서 밀가루 4천t 구매계약,” 2007. 12. 3)

□ 한국, 2007년 대북 식량 차관 40만 톤 수송 완료

- 2007년 12월 5일 청진항에 인도할 37번째 항차의 쌀 수송선이 부산항을 출발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40만 톤의 쌀 차관 수송이 마무리됨.
 - 2007년 쌀 차관은 지난 4월 22일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었으며 첫 항차는 6월 30일 군산을 출발하여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하였음.
 - 40만 톤 중 5만 톤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육상으로 운송되었으며 나머지 35만 톤은 6월 30일부터 12월 5일 사이 해상으로 운송되었음.

- 40만 톤 중 국내산은 15만 톤, 외국산은 25만 톤임.

- 매 항차마다 3~5명의 인도요원이 참여하며 총 293명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전 수송 과정에 참여함.
- 남북한 합의에 의해 모두 4회에 걸쳐 남한의 대표가 북한의 식량분배소 방문하여 식량 분배 상황을 확인함.
- 각 모니터링마다 동해안 3개소와 서해안 2개소를 선정하여 총 20여개소의 식량분배소를 확인함.

자료: <http://www.relief.in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pletion of the shipment of 400,000 tons of loan-based food aid to North Korea for 2006, Dec. 5, 2007)

□ 한국의 민간지원단체, 대북 식량지원에 최우선 움직임

- 내년 봄 남한의 정권 교체기와 북한의 춘궁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민간 대북지원단체는 보건의료, 복지 등 일반구호보다는 긴급구호 성격이 짙은 식량 지원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남북나눔공동체, 한국JTS, 나눔인터내셔널 등 한국 대북지원단체 사이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분야의 지원을 식량으로 돌리는 등 식량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국제곡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지급해오던 장려금을 최근 폐지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해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북한 문제가 제대로 풀려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몰라도 내년 춘궁기 때 북한의 식량사정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민간 대북지원단체 식량 최우선 움직임,” 2007. 12. 20)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2007년 10~12월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10월 평균 기온은 11.2도로 평년에 비해 1.0도, 12월은 -2.9도로 평년에 비해 1.7도 높았으나 11월은 2.5도로 평년과 같았음.
 - 2007년의 경우 7월을 제외하고는 영농철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수확기(9~10월)의 높은 기온은 벼와 옥수수의 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와 일조 부족은 벼와 옥수수의 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강수량

- 2007년 10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높았으나 11~12월은 평년에 비해 낮았음.
 - 8월 이후 10월까지 평년에 비해 높은 강수량을 보였으며 특히 8, 9월은 평년의 2배가 넘는 강수량을 보임에 따라 벼와 옥수수 등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의 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모작 지역을 중심으로 11월과 12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적어 겨울밀과 가을보리의 습해 피해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함.
- 안주, 평양, 남포, 해주, 사리원, 개성 등 서해안 지대의 11월과 12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2008년 새해에도 이어질 경우 겨울가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누적강수량, 10~12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46.8 (72.9)	99.3 (110.4)	115.1 (82.6)	52.1 (73.3)	107.1 (52.1)	82.3 (88.2)	60.5 (67.9)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83.7 (115.1)	166.1 (107.2)	46.7 (74.0)	162.5 (103.5)	111.7 (105.7)	47.1 (125.1)	178.8 (91.2)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58.1 (102.5)	92.2 (94.4)	67.1 (93.6)	174.7 (170.0)	108.4 (96.3)	80.0 (118.4)	154.4 (266.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59.7 (106.0)	34.3 (106.4)	50.0 (92.1)	68.3 (92.1)	41.0 (97.2)	81.2 (122.1)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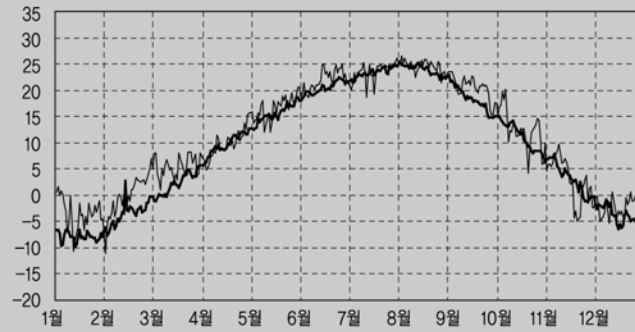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0월	기 온	12.6 (11.1)	13.2 (11.8)	14.7 (13.6)	12.4 (10.9)	13.3 (12.0)	14.2 (13.4)
	강수량	67.6 (41.2)	68.5 (43.3)	26.2 (36.0)	11.5 (30.4)	143.5 (40.1)	128.3 (66.3)
11월	기 온	3.0 (3.3)	4.1 (4.1)	6.6 (6.1)	4.3 (3.5)	4.9 (4.7)	7.1 (6.6)
	강수량	34.0 (38.7)	31.7 (34.6)	29.0 (38.8)	85.0 (33.3)	29.2 (36.0)	23.4 (74.7)
12월	기 온	-2.3 (-4.0)	-1.4 (-3.1)	1.3 (-0.6)	-0.2 (-2.7)	0.5 (-1.4)	2.1 (0.6)
	강수량	4.3 (14.5)	8.2 (18.4)	13.1 (17.3)	18.6 (18.9)	9.0 (15.1)	29.2 (29.0)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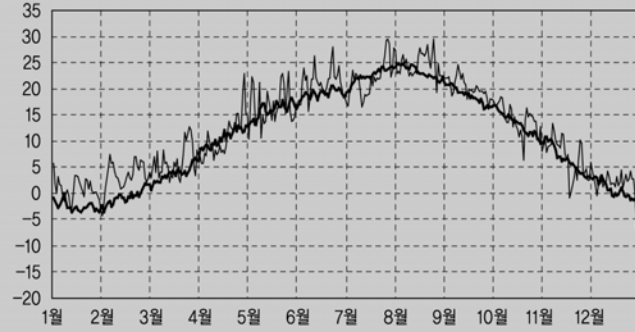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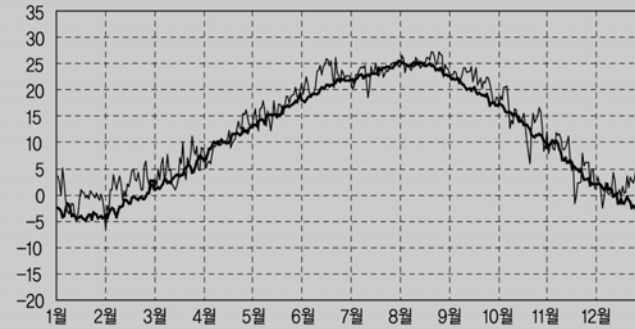
안주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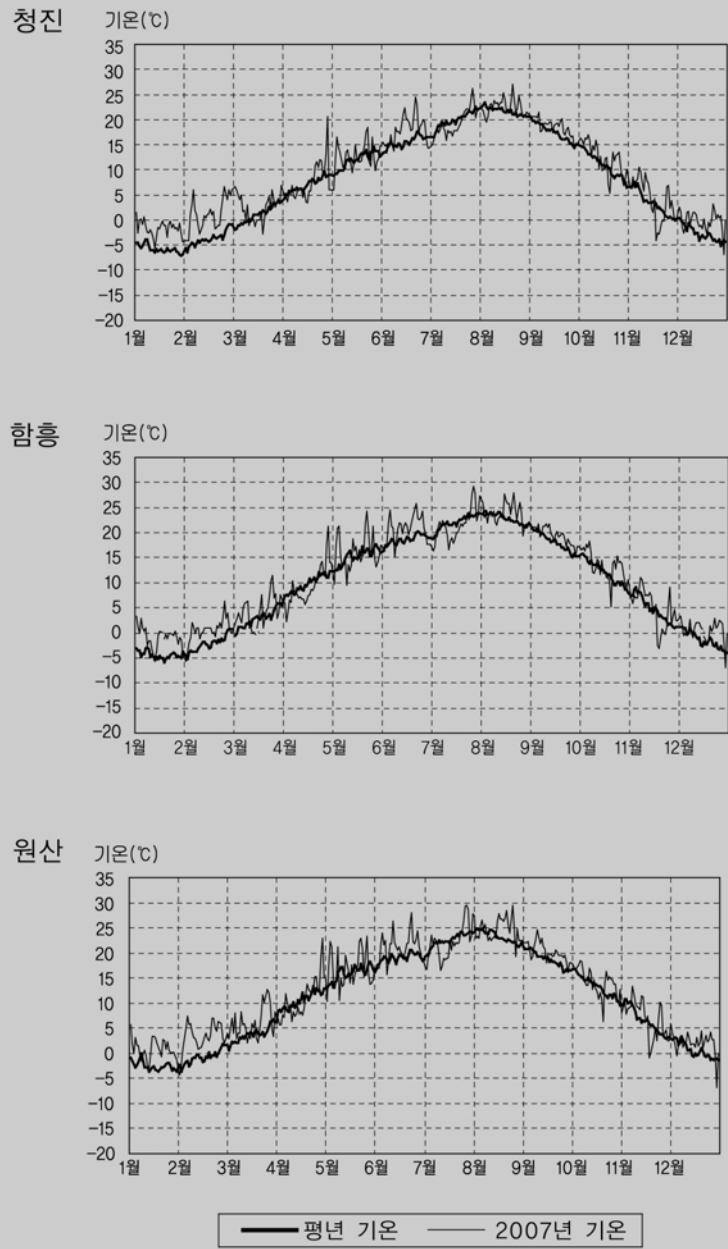
평양 기온(℃)



해주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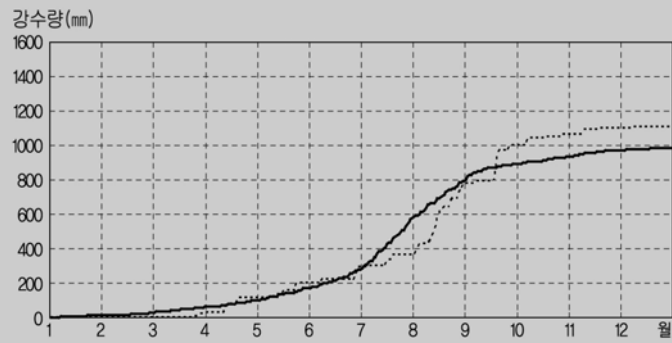


— 평년 기온 — 2007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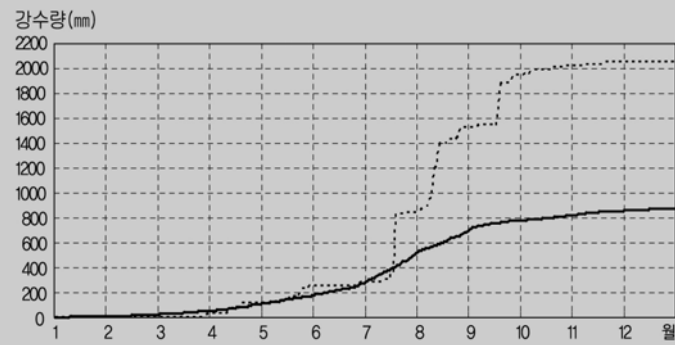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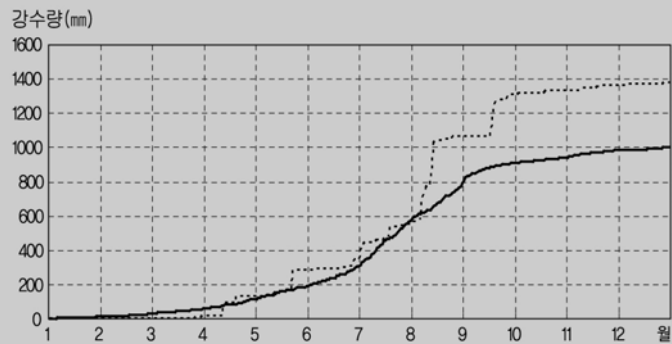
안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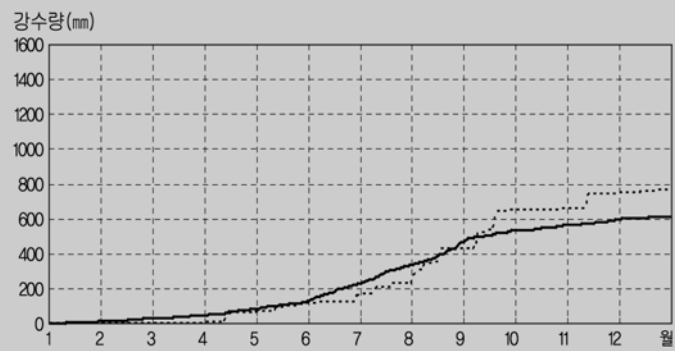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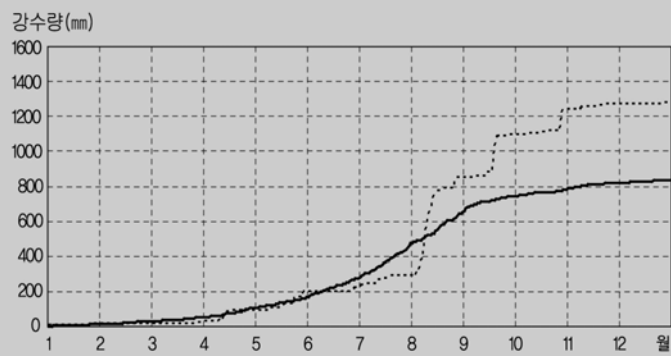


— 평년 강수량 - - - 2007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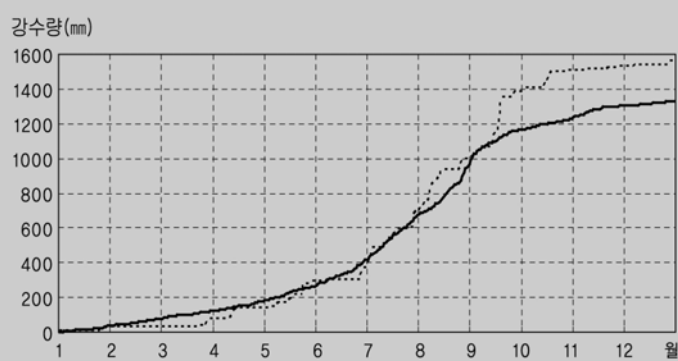
청진



함흥



원산



— 평년 강수량 — 2007년 강수량

M46-9-4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4호

찍 은 날	2008. 1.	펴낸날	2008. 1.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